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1월 2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법회 안내

도선사 (02)993-3161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중·고등법회 일 오후 12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 3시

법륜사 (02)732-2710
큰스님친견및 인등법회
매월 1일 오전 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삼보사 (02)352-6404
수요 기초교리강좌 매주 수
오전 10시30분
일요가족법회 일 오전 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청소년법회 일 오후 1시30분

보문사 (02)928-3797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인등법회 매월 보름(음)
지장 법회 매월 18일(음)
관음 법회 매월 24일(음)

광명선원 (02)584-1108
월운스님 초청법회 매월
24일(음) 오전 10시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 월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 6시
전통사찰음식 요리강좌 매월
둘째 주 월 오전 11시

분당 장안사 (0342)703-7766
가족법회 일 오전 10시30분
거사림법회 매주 토 오후 7시
교양대학 금 오후 1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남양주 봉선사 (0346)68-1958
신도회 매월 초하루 · 보름(음)
거사회 매월 둘째 · 넷째 일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교양대학 매주 목 오전 11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 7시

강화 법왕사 (0349)33-2959
신도법회 매주 수 오후 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환경 관심도 너무 낮다

불경에는 가르침 풍성 · · · 연구논문은 30여편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환경' 관련 연구가 보다 활기차게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책을 불교학적 입장에서 학문의 연구 성과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불교와 환경의 유기적 관련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층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할 때 이같은 여론의 대두는 당연한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내재된 환경 관련의 사상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 미진한 가운데 아직까지 석 ·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관련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란 지적도 교계 일각에서는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속에서 불교학 학자들이 단편적으로 발표한 불교와 환경 관련 논문은 30여편에 머물고 있다. 이들 논문은 대개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환경문제와 관련된 불교사상을 비교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 이들 논문은 불교학에 대한 전공분야를 나름대로 굳힌 학자들이 단편적으로 발표한 것이어서 전문성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전문불교학자가 환경문제를 단발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는 학자의 양성이 절실하다는 게 관련 학계의 지적이다. 또 불교학자와 환경학자의 공동연구를 통한 환경문제의 불교적 해결책 제시도 보편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무게있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학계의 입각에서는 환경문제 자체가 학문적 연구보다는 실천성을 요망하는 만큼 이론의 차원에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구의 경우에도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생태 · 환경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법을 이끌 수 있는 사상적 근간은 학자들이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관련 학계 일각의 얘기다.

이에 반해 환경운동을 이끄는 현장에서는 실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단단히 자리잡는다면 실천운동도 그만큼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종교계에서 신앙성을 담보로 한 환경운동의 타당성을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발표해 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 법륜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단순한 자연 환경의 오염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환경문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온 삶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명사적인 문제이며 철학적 근원을 재조명하는 문제이므로 인간 개개인의 발전과 행복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을 의하는 의식변화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운동의 차원에 앞서 인류의 정신사적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서원과 연대〉〈공해없는 세상〉등의 기관지들을 통해 불교와 환경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들 기관지를 펴내는 한국불교사회연구소와 공해추방운동 불교인모임등은 기관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근거로 폭넓은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단체들의 활약과 불교 학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의 고조는 '불교와 환경' 관련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따른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유관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재경 기자〉

동대 문화예술대학원 설립

불교음악등 6과목 개설·국내최초

동국대학교(총장 민병천)가 지난 21일 국내대학으로는 처음로 교육부로부터 문화예술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될 문화예술대학원은 불교예술문학과, 연극영화과, 문예창작과 등 3개학과에 불교미술, 불교음악, 문화재, 연극, 영화영상, 문예창작 등 6개 전공과목을 개설한다.

동국대측은 "선진국 문화영상사업의 국내유입과 UR개방을 앞두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문화예술대학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대학원은 석사 · 연구자 · 관리자과정으로 운영되며 석사 · 연구자과정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리자과정은 불교예술인, 종견작가, 언론 · 문화 · 예술 및 유관단체 인원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불교예술 관련학과가 동국대에 설립된 것은 동국대가 불교종립대학으로 관련학과가 많고 오랜 전통과 연구성과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황, 불교 잘못 이해하고 있다 12면
운주사의 염원 그리는 강연균 화백 13면



◇ 지난 16일 종회의원 8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혁종단의 바톤을 잇는 조계종 제 11대 중앙종회가 개원됐다.

제11대 중앙종회 출범

조계종 의장에 설정 부의장 일면 · 청화 스님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개원식에서 정우스님(구룡사주지)이 대표로 의원선서를 했다. 총무원장 탄성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지난 7개월간 개혁불사는 험난했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불보살의 가피로 여법하게 마무리하게 되었다"며 "종회의원들이 솔선수범으로 개혁불사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하 종정스님은 석주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새로운 종단을 구성, 종회를 출범하는 시발점에 섰으니 장유의 서가 무리없이 지켜지고 승가의 본분수행이 저절로 존경받는 발전된 모습의 종단구현, 멸사봉공의 희생이 전제된 전 승가의 대변인으로서의 손색없는 자격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114회 정기중앙종회가 조계종 총무원청사 1층에서 개최, 제11대 종회의장으로 설정스님(전 수덕사주지)과 지하스님(총무원 부원장)이 입후보해, 비밀 무기명투표로 설정스님이 선출됐다. (인터뷰 14면)

수석부의장에는 일면스님, 차석부의장에는 청화스님(청암사주지)이, 사무처장에는 원학스님이 임명됐다.

한편 각 분과위원장 선출에 들어가 총무분과위원장에 정우, 교육분과위원장 송산, 포교분과위원장 지홍, 사회분과위원장 명진, 재정분과위원장 영담, 호법분과위원장 장은, 법제분과위원장에 정휴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목어

재벌의 눈물

재벌그룹의 총수가 눈물을 흘렸다.

지난 15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안병화 전 한전사장의 뇌물사건 결심공판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전과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조금도 법을 어기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며 흐느낀 재벌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김회장의 흐느낌은 피고인석 바로 앞에 있던 마이크에 흡수되면서 소리가 몇 배나 증폭돼 전 법정으로 울려퍼졌다고 한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격한 감정속에 이렇게 말을 이었다고 일간지는 전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월급쟁이 생활 7년을 포함해 28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가족과 개인을 위해 돈을 번것이 아니라 · · ·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 · ·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해 일할 것이 많습니다 · · ·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용은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재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날 검찰은 김우중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에게는 철저한 무소유를 강조했으면서도 일반 재가자들에게는 정당한 노력으로 부(富)를 이루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부를 널리 베풀라고 일러 주셨다. 사회의 공유에 회향하라는 뜻이다.

김회장은 개인과 가족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았음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28년간 쉬지 않고 일했을 것이다. 그런 그의 '눈물'과 1년 6월의 구형은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누누히 강조하셨다. 사람들은 집착 때문에 근심하고, 소유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커졌다



KIA 기아자동차

뉴-세피아 탄생!

이제 중형의 느낌으로 타십시오.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놀랄만큼 달라진 스타일, 대폭 강화된 안전시스템으로 — 뉴세피아
'95년 부터 더욱 강화되는 新미연방안전기준(FMVSS)을 적용하여
무려 570여 가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년만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차는 아직 없었습니다.

스타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 품위있는 전면 스타일을 연출해 주는 본넷라인과 후론트 범퍼
- 국내최초로 안개등, 콤비 램프가 내장된 일체형 고광도 헤드램프
- 볼륨감이 돋보이는 라운드 감각의 리어 피니셔와 리어 콤비램프
- 더욱 둥글고 편리한 드라이빙을 도와주는 일체형 대쉬보드
- 조작성을 향상시키고 도난방지 기능을 추가한 최고급 알파인 오디오(선택)
- 새로운 디자인의 로터리 칠환 E/업의 고성능 에어컨(선택)

안전이 더욱 커졌습니다.
- 충격에 대한 강도가 대폭 향상된 직선일체형 T형 버팀쇠
- 충돌시 1차 충격흡수 능력을 더욱 강화한 전면 관넬
-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한 도어 임팩트바
- 사용 비율을 월등히 높여 차체의 강성을 향상시킨 고장력 강판
- '96년부터 적용되는 新FMVSS 측면 안전기준(54km/h 측면 충돌시 안전도)을 만족시킨 특수 보강재, 시트하단 특수 프레임

성능이 더욱 커졌습니다.
- 2방향에서 연료를 분사, 가속 응답성을 향상시킨 2스프레이인젝터
- 최적의 연료량을 분사하여 고출력을 실현한 다중 연료분사기능
- 엔진고장시 즉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자체 고장진단기능
- 최첨단의 소음차단 설계로 쾌적함을 주는 NVH성능
- 엔진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공회전 속도 자동제어 기능
- 진동을 대폭 줄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新형상 타이어

NEW SEPHIA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1.5 DOHC MT 5단 (1,498cc, 1,205kg) 13.0km/ℓ 2단이내 , 1,600~1,700cc
- 1.5 DOHC AT 4단 (1,498cc, 1,265kg) 12.5km/ℓ 2단이내 , 1,600~1,700cc
- 1.5 SOHC MT 5단 (1,498cc, 1,215kg) 13.7km/ℓ 2단이내 , 1,600~1,700cc
- 1.5 SOHC AT 4단 (1,498cc, 1,265kg) 12.5km/ℓ 2단이내 , 1,600~1,700cc
* 연료탱크 사용방법, 급유요령 자리 입니다.

새옷 입는 조계종을 보며

열린마당

개 혁

사 설

안에서 밖으로 확산···대화합의 길 열자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개혁불사는 총무원장 선거를 치루므로써 개혁회의 팀이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지난 8개월 남짓한 짧은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개혁불사를 주도한 스님들의 열의와 밤낮을 가리지 않은 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종단적인 단합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을 주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에 있어서도 이 단합된 거종단적인 지지가 지속적으로 힘이 되어 종단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일반인과 불교인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개혁불사가 종헌과 종법을 바꾸고 제도를 혁신하고 소임 맡은 사람을 바꾸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란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진정한 개혁불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종헌·종법을 새로 만들고 제도와 사람을 바꾼 것은 개혁의 내용을 담는 그릇을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은 그 그릇에 채워진 내용에 따라 성패가 가름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개혁불사를 두고 일반인이 '불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말이 어불성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반증해 주고 있다. 개혁불사의 성패 여하에 한국불교의 내일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말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혁이란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깨달음에 다름 아니다. 용성스님이 불교를 대각교(大覺敎)라고 하였듯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개인과 사회가 나날이 새롭게 깨닫고 태어나기를 요구한다. 말하자면 개혁불사는 개인과 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안심입명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깨달음은 어떤 제도나 밖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안에서 이루어져 밖으로 확산될 때 개혁의 섭리를 거둘 수 있다.

셋째, 묵은 껍질은 벗고 새로 태어나는 개혁에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이가 없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종단에 해를 끼치고 화합을 깨뜨린다 하더라도 그를 아주 버리는 극단에는 흐르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화합의 힘은 듯이 같지 않은 이를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해치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데바닷다까지도 성불한다고 설하는 법화경의 가르침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한다. 거듭 바라는 바이지만, 아무쪼록 개혁불사가 대화합의 길을 열어 나아가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전문가의견

가르침 되새기며 중생의 소리에 응답해야

종교현상학에서는 종교의 역사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전개된다고 본다. 종교현상학자 멀치아 엘리아데가 「종교적인 것」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성」(聖, the sacred)와 「속」(俗, the profane)의 개념이었다. 인간의 일상적인 실존양태를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것은 그 반대인 비일상성인 「거룩한 것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은 이러한 성스러움의 실재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 속이 이분법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성」 그 자체가 아니라 다만 성스러움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의 기준은 성속의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현(聖顯:성스러움이 드러남 hierphany)의 유무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리와 현현의 공존성과 단절성에 성과 속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거룩한 것은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세속적인 것에로의 타락과 분리의 가능성도 항상 지니고 있다. 엘리아데는 세계종교의 역사를 이와같은 성과 속의 변증법적 원리에 의해 조명해 볼 수 있는 예지를 보여주었다.

세계종교사를 통하여 우리는 어느 종교 집단이던 그 교단사의 전개과정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과의 역동적 긴장과 역설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종교집단은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요소와 성스러운 종교적인 요소가 혼재하여 있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종교집단의 두가지 속성에서 변증법적 발전이 있게 된다. 종교 창시자의 성스러운 가르침이 바르게 전승되지 못하고 타락되고 변질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래의 성스러움을 향한 개혁운동은 필연적으로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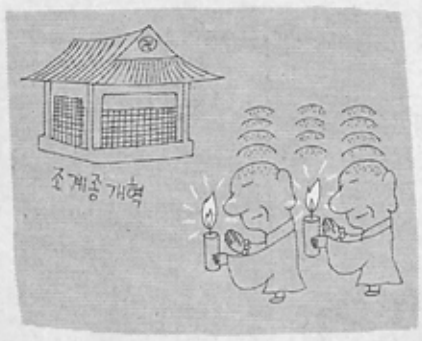
불교의 개혁운동도 이러한 종교현상학적인 원리에서 그 운동의 방향과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거룩한 것은 세속화됨으로부터 항상 다시 복원하려는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세기 전후에 일어났던 인도의 대승불교운동도 근본불교정신에로의 복원을 향한 개혁이었다. 오늘의 한국불교 현실은 불타교법의 성현(聖顯)이 희미해지고 그 복원력이 상실된 채 방황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성스러움의 근원인 불타 정신의 가르침을 드러내지 못하는 원인은 오늘의 불교공동체가 그 본래의 가르침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에는 현상의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혁명적인 것과 창시자의 정신으로 되돌아 가려는 복원적인 것이 있다. 한국불교는 변질되고 타락된 속됨의 해체를 통한 거룩함에로의 복원이 절실하다. 그 복원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역사와 중생의 소리에 대한 현재의 응답에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불타교법의 성스러움은 이 세간의 시간과 공간과 진리 공동체를 통하여 항상 현재화된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야 한다.

김 용 표 〈종교학 박사〉

현대만평

박 구 원



하나의 佛心으로

시 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우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사회에 살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 중 서구의 나라들은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다수인 사회이며, 일본은 불교신자가 대다수인 사회이다. 우리사회는 불교와 기독교, 카톨릭, 단군교등 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종교인의 숫자 또한 드물게 많은 나라기이도 하다.

우리가 다종교사회를 유지하려면 종교 사이의 갈등이나, 배타적 의식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한다. 어떤 사람이 푸른색을 좋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빨간색을 보다 좋아하면 핍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과 깨달음의 길로 가는 선택에서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며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각 범

〈서울대교수·본지 논설위원〉

최근 우리나라의 국보 제2호인 탑골공원내 원각사지 삼층석탑의 마모,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국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더우기 자연적 일실 뿐만이 아니라 미륵보살 등 성상이 예리한 물체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뚜렷하다는 사실은 어처구니 없기까지 하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들은 카톨릭이 지배하는 사회속에서 온존되어 오늘에 내려오고 있다. 우상이라고 하여 배척받지 않고 오히려 종교의 차이를 극복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보존되어 문화의 유산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 신을 믿는 종교는 사라졌어도, 그 신이 머물렀다는 곳은 그리스 민족의 문화적 유산이자 올림픽 성화를 채화하는 세계적 성소로 남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

타종교를 배척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종파 신도들은 불교를 믿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서도 불상을 훼손하기까지 하여 작은 외교문제를 야기시키기까지 한다.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가 소중한 것처럼 세계 어느나라도 그 나라의 문화를 소중히 아끼고 보존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종교가 다르다고하여 내 나라와 남의 나라 문화유산까지 흠을 내려는 것은 종교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경쟁적인 대상이 아니며, 신앙은 독선적일 수 없다. 어떠한 종교라 할지라도 그 뜻이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개인적 복을 받기 위해 기적에나 매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타종교를 해치거나 음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그 종교가 인류의 보편적 해방과 구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불교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여야할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의 불상 논쟁 역시 우리나라의 종교가 참다운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종교인이 참신앙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불상을 공개까지 하게 된것은 세상의 헛소문 때문이었다.

종정과 추기경의 기도

최근 우리나라에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흉악범이 날뛰는 것은 전입대통령들이 만들었다는 청와대의 불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라는 이 소문은 불상 중의 일부가 없어졌던 남아있던 간에 근거없는 것이며, 비불교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은 분노하는 신이 아니며, 부처님상을 손상했다고 하여 사람을 해치고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불상을 깨뜨리는 행위는 깨뜨리는 자의 수행하는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멀어지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부처님이 노워여하여 보복하셨을리는 없는 것이다. 그 많은 사고와 사건들은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 불상과 관련된 것이라니, 터무니 없는 말이다. 꼭같은 이유로 청와대의 불상을 꼭 헐어야 한다는 일부 종교인의 주장 역시 이같은 헛소문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수준과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종교를 믿는가의 다름이 아니라 종교적 수준의 높고 낮음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 불교계에 보낸 축전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퍼져, 이땅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빈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분이 요즈음도 새벽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신앙적 정진을 거듭하는 참 기독인으로 알고 있다. 그분의 신앙이 이와같이 돈독하기에 남의 종교를 모독함으로써 후세에 천당 갈 수 있게 해달라거나 이생에서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 따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입적하신 성철종정 예하 역시 어느 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땅에 오시어 베푸신 구원을 축하한 적이 있다. 이러한 태도가 곧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에 다다른 분들이 보이는 대승적 표현이며,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사회의 문제들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과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다. 많은 이들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목전의 이익에 골몰하고 있으나 진정한 구원과 해탈에는 오히려 무관심하다. 종교가 존재하는 사회적 이유는 바로 이와같은 중생의 문제들에 사람의 관심을 돌려서 해결의 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풍부한 종교적 자원이 종파 이기주의에 묶이지 않은 채 중생구원에 그 큰 뜻을 둔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구원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제11대
중앙종회 의장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 의장단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 중앙종회는 진정한 개혁의 시발점에서 구성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실시된 의장단 선거의 공명성을 계속 유지하여 본종 발전에 크게 기여 하리라 믿습니다.

의 장 설 정 스님
수석부의장 일 면 스님
부 의 장 청 화 스님

한국불교 발전 연구원 임직원 일동

신행수첩

겨레사랑 나라사랑 '원화·화랑 모임' 발대

한민족으로서 나라와 전통을 사랑하고 주체적 문화가치관을 계승, 발전시킬 원화와 화랑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박현성)가 주최하고 교화연합회 인천지부가 주관하는 "원화와 화랑들이 모임" 통일 대축제가 오는 26일 오후 5시 인천시민회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날 행사에서 8백여명의 초·중·고생은 '원화와 화랑들의 모임' 발대식 기념법회를 갖고 통일조국과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청소년상을 세우자는 다짐을 한다.

이어 열리는 사물놀이, 대금연주, 가야금병창 등의 전통문화 축하공연은 원화와 화랑들에게 사라져 가는 우리얼을 익히게 하고 주체적 문화가치관 형성을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행사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게 된다.

'원화와 화랑의 모임'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모임과 문화유적지 답사 및 국토순례등 올바른 청소년문화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원화와 화랑의 긍지를 느끼고 싶은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권해본다.

(02)735-8165

참선 통해 나 찾는다 26일부터동국좌선회

일상을 벗어나 산사의 생활을 체험한 다는 것, 거기에다 선의 진수까지 맛볼 수 있다면 가히 금상첨화일 것이다.

동국대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동국좌선회(회장 신용태교수)는 26일부터 1박2일간 국내 유수의 수선도량 예산 수덕사에서 동계 참선 정진수련회를 갖는다.

가야산 남쪽 줄기 덕숭산 중턱에서 느껴지는 고찰의 장엄 속에 울리는 예불과 참선수행은 50여명의 좌선회 회원들에게 자신속의 부처님을 찾게 해 줄 것이다.

선풍을 크게 떨친 만공선사와 개화기 여류시인이었던 김일엽스님의 불심이 묻힌 이곳 덕숭총림은 몰아오는 회원들의 마음을 맑은 향기로 가득 채워 주게 될 것이다.(02)260-3015

관음 성지 의상대 내년봄 새모습 복원

불자에게는 관음보살의 성지로, 국민에게는 동해안 최고의 명승지로 인식돼온 낙산사 의상대가 해체돼 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다행히 양양군과 낙산사는 양양군 불자들의 신심과 계속되는 청원에 힘입어 11일 설계에 착수, 해빙이 되는 내년 3월 본격 공사를 추진키로 해 낙산사 신도들과 군민의 환영을 받았다.

낙산사와 양양군에 따르면 11일 설계에 들어간 의상대는 철거된 정자각의 사용가능한 부재는 그대로 사용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예정이다. 또 의상대 주변환경은 종합설계로 현재 철재난간을 석재로 바꾸는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의상대(義湘臺)는 신라 중기 한국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625~702)가 671년 낙산사(洛山寺)를 창건하고, 참선에 열중한 곳이다.

동해안 최고의 명승지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의상대는 1926년 7.5평의 육각형 정자로 건립된뒤 36년 폭풍우로 붕괴된 것을 37년 중수했으며, 지난 74년 도 유형문화재48호로 지정됐다.

'세계일화' 의미 되새겨

만공선사 48주 추모법회 수덕사서



◇만공스님

근세 선지식 가운데 만공스님은 기풍 당당한 선사였다. 일제때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본산 주지회의에서 '총독부는 불교계에 간섭치 말라'고 일갈하던 만공스님은 한국불교선맥의 중흥조이다.

오는 21일로 만공스님 열반 48주년을 맞는다. 수덕사와 정혜사는 선풍을 떨친 스님의 유업을 기려 추모법회 및 다례를 개최한다. 수덕사는 21일 대웅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22일 정혜사는 만공스님의 선지를 받드는 추모 다례를 올린다. 수덕사를 돌아보고 정혜사로 오르면서 만날수 있는 미륵석불과 만공탑, 기암괴석과 숲이 어울린 덕숭산에서 '세계일화'를 주창한 만공스님의 기운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0458)37-6565

탄허스님의 학덕기려

제단설립 10년 화엄경간행 20년



◇탄허스님

탄허스님의 훈향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짙게 후학들에게 다가 온다. 스물 두살때 오대산 상원사로 출가, 3년간의 묵언과 15년간의 산문불출등 치열한 정진을 했던 스님은 조계종 초대 역경원장을 지내며〈화엄경〉〈능엄경〉등 많은 경전을 번역 불후의 수행력을 보여줬다.

탄허스님의 유덕을 기리기위해 설립된 탄허문화재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고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이 출간된지는 20년을 맞았다.이 같은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는20일 대전 자광사에서는 대법회가 열린다.

이날 법회에서는 각성스님이 「화엄경 간행 출판의 의의」를 정병조 교수가 「현대불교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도 한다. (042)822-9219



◇만공선사의 선풍이 남아있는 수덕사에는 공부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찰 찾아 통일발원 27일 신륵사등 참배

경기도 여주는 군내에 신륵사와 고달사지 세종대왕릉(영릉) 및 효종이 묻힌 영릉이 있어 문화유적의 고도로 불린다.

최근에는 도예촌과 목아박물관이 조성돼 문화유적답사가 줄을 잇는 곳이다.

통일염원남북불교순례단(단장 고준환)은 오는 27일 제27차 명산대찰순례를 통국대박물관 학예연구원 이기선씨와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안내로 이곳 신륵사와 목아불교박물관을 찾는다.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라면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27일 오전 7시30분 양재동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출발한다.

(02)390-5220

'우리도 악손 되게 하소서' 용궁사 약사여래불 점안

중생의 모든 병고액난을 치유하기 위해 또 한분의 약사여래부처님이 모셔진다.

경남 양산 해동 용궁사(주지 정암)는 12월 7일 약사여래좌불을 조성 증명법사 고산스님과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식을 봉행한다.

용궁사측은 점안식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위해 다양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이 기대된다.

(0523)361-3165

화요일 밤의 만남 청년여래회「문학 강좌」

날로 희박해지는 공동체의식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쉬운 모든 이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의식과 사상을 제시하는 강좌가 열리고 있다.

청년여래회(회장 박진우)는 지난 8일부터 매주 화요일밤 명륜동 청년여래법당에서 '문학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혜범스님, 정찬주, 김충호씨 등의 불교와 문학에 대한 주제강의가 펼쳐지는 '문학강좌'는 이에 관심있는 청강자들의 지적욕구를 채워주기에 충분하다.

12월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문학강좌'는 불교와 문학과 대중이 함께 하며 문학속의 불교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상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인연의 마당이 되고 있다. (02)747-1902

불제자는 공부도 열심히 조계사 공부방 운영

불교학생회교사나 법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고 있다.

조계사 학생회가 공부잘하는 불제자가 될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학생회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계사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방을 운영키로 했다.

학생회 공부방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신청자의 성적순에 따라 10~15명 정도로 한 팀을 만들어 국·영·수 과목을 일주일에 각 1시간씩 2차례 공부한다.

학생회 출신 선배들이 지도교사로 봉사에 나선 것은 학업 성적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지도 할 예정이어서 재학생들의 기대가 크다. (02)734-8179

나의 수행일기



윤 영 자

<방송대 교수>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다.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신교육의 향학열에 불타 동경행 가출계획이 외조부모님께 사전누설되자 과평 윤씨 3대독자 며느리로 서둘러 시집을 오게 된 나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원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나의 어머니는 시집을 온 후 아버님도 교회로 인도하려 했을 정도로 신심이 강했다. 전통적인 양반의 가풍을 이어오며 3대째나 독자만으로 가계가 유지되어 오던 윤씨댁 집안에는 집안망할 일 났다며 온통 난리였다 한다.



성경말씀과 장엄하고 감동적인 성가와 설교를 접하는 정례적인 채플이 있었음에도 주말이면 조계사의 대학생불교연합회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설법을 귀담아 들었다. 그것은 유아시절의 종교적 체험을 쉽게 저버리지 못했었던 데 연유할 것이다. 이 법회를 통해서 나는 귀중한 인연들을 만났다. 이때 들었던 설법들이 오늘날 나름대로의 불교관과 종교관을 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불교학을 학문적으로 전파하고 계시는 박성배교수와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서경수, 이종익교수님, 원효사상을 설법하시던 이기영교수님의 교리강좌와 인품이 고매하시던 서돈각박사님의 설법이 내게 큰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청담, 성철, 일타 큰스님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농담중에 들려주시던 법담들, 법정스님과의 산행, 또한 취사도구 몰러메고 높은 산을 힘겹게 넘으면서 정겹게 주고받던 대불련 법우들과의 불교교리들 ….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내가 비록 사찰에 정기적으로 들러 법회참여는 못할지언정 나름대로

대학때 들은 법문 내 삶의 거울

구식 예법에 젖어 5대선조를 봉사하는 자손 귀한 집안에 당시로서는 귀설은 예수 믿음에 빠진 새 며느리와 귀한 아들마저 전도되어 버린 현실과 딸만 내리 넷을 낳고 아들두기를 학수고대하게 된 절박한 상황은 과감한 결단을 강요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여기에서 나의 어머니는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개종을 결행하셨다. 그 이후 어머니의 불자로서의 신행은 거의 스님생활에 가까웠다고 말할 만큼 철두철미했다고 생각된다.

집에는 거의 매일 스님들이 왕래하시며 숙식을 함께 하셨고 동안거 하안거 등 참선생활에도 동참하셨다.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그리고 아버님의 근무지를 따라 잦은 이사를 했으면서도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나는 절에 자주 다녔다. 그 경우 심부름의 목적은 주로 가정 화평과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어머니의 정성의 표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저런 환경속에 어릴적부터 나의 종교는 자연히 교리는 몰랐다해도 의식행사에 친숙해져 불자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돈독한 신심을 가진 불자가 된 계기는 대학시절때문이었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이화여대에 입학하여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도에 따르려는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갖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이 있다. 당시 일요일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뚝섬 나룻터에서 쪽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봉은사에서 온 종일 정진하던 일이다. 나루를 건너 논둑길과 배밭을 지나고 소나무 오솔길 고개를 넘어 봉은사에 이르는 길이 오늘은 웅장한 고층빌딩과 소란한 경적소리에 묻혀 자취가 없어졌으나 생각많고 꿈많던 젊은시절 청춘을 살지우게 해준 상념의 길이었다. 단아한 용모에 열정과 패기에 넘치는 광덕큰스님의 가슴에 와 닿는 설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젊은 불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렵다하는 불교를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를 위한 어떠한 소명의식마저 일깨워 주셨다.

한마디로 이와같이 반복되던 4년에 달하는 대학생활 등안의 대불련 법회 참여와 수행정진 생활은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된 생활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심지를 심어주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생활 속의 불교⑥

"쏘가리가 쏘가리 마음인 채로 있는 한"

세상을 살펴보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새는 새대로, 들짐승은 들짐승대로 온갖 벌레와 미물들도
나름대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두가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한 몸짓이다.
그렇게 모든 생명에게는 차원의 높낮이는 있다 할지언정 마음이라는 게 있어
그 마음이 육신을 끌고 다닌다. 마치 움직이는 자동차에 주인이 타고 있듯이……

인간도 보다 나은 상태를 향해 쉬지 않고 움직인다.
잠시도 한 곳에 딱 못박히듯 머물러 있는 경우란 없다. 살아 있는 한은 그렇다.
물론 잠시도 쉬지 않는 가운데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모두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진화란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마음의 차원이 달라지면 육신의 기능까지도, 모양새도 달라진다.
마음의 설계에 의해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 곧 창조다.
고로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마음을 내고 움직이는 것은 창조와 진화의 연속과정이다.
거기에 마음의 차원따라 고통·범죄·감옥이 기다리는 퇴화의 과정도 있다.
그러므로 쏘가리가 늘 쏘가리 마음인 채로 있는 한은 진화는 멈춘다.
인간의 차원도 그렇게 결정된다.

불법외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생명!
기술은 최고, 최고 기술은 정성!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견인차량 24시간 항시 대기

정확한 진단, 신속한 처리

섬세한 안전점검

그리고 보험업무처리까지

동광자동차공업사
성동구 화양동 151의 12
전화:(02)464-1472
464-0882
팩스:(02)469-1472

통도사 새 주지 임명



지은스님이 통도사 새 주지로 임명받았다. 지은스님은 1956년 월하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통도사 규정국장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원전통다도 강의



선혜스님(불교전통문화원장)은 사원전통다도를 12월부터 마포불교문화센터에서 강의한다. 3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 (02)703-0108

청와대 성화 부당성 지적

동진스님(불교대구교육원 사무국장)은 지난 23일자 대구매일신문 「매일춘추」란에 「청와대 불상과 성화」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 칼럼을 통해 스님은 청와대 불상에 대한 최초의 소문과 관련 청와대측의 사실확인과 관저내의 성화(聖畵)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인도 8대 성지순례



김태호 사장(불교방송)은 지난 17일 교계인사 23명과 함께 인도 불교성지순례길에 나섰다.

대한항공, 한진관광이 주관하는 이번 성지순례에서 김사장은 8박9일의 일정으로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본사에서는 윤제학 차장이 동행한다.

'기업과 문화' 학술세미나



엄상호 건원그룹회장(고려대경영대학원 교우회장)은 18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이민섭 문체부장관을 초청, '국제화시대의 기업과 문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

이날 세미나에는 엄상호회장과 조내벽 라이프그룹회장, 조철권 전 노동부장관, 김하천 고려대부총장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출판사 사무실 이전



김종규 회장(삼성출판사)은 지난 13일 출판사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0-9(우신빌딩 6, 7층)으로 옮겼다. (02)3452-8331

광개토대왕비 탁본 공개

임기중교수(동국대 국문과)는 지난 9일 경기대 박물관이 주최한 「광개토대왕비 연구의 재조명」 세미나에서 가장 오래된 광개토대왕비의 탁본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임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경대 소장 탁본 3건을 검증 이들 탁본이 1870년에서 70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라 밝혀 최고 오래된 것임을 입증했다.

정문연 세미나 주제 발표

김용정교수(동국대 철학과)는 지난 18일 정신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세미나에 참석, '현대 한국철학에 있어서 참조적 지성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



영월 쌍용양회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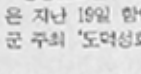
한정섭법사(상낙향수도원)는 29일 오후 4시 영월 쌍용양회 공장대회의실에서 '현대인의 가치관과 바르게 사는길'이란 주제의 강연을 한다.

영월 쌍용양회서 강연



한종만교수(원광대 원불교학과)는 지난 11일 동국대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주최 제22회 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회에 참석, 「원효의 노자사상과의 회통」에 대해 발표했다.

'도덕성회복운동…' 참석



정동호의원(무소속, 의령·함안)은 지난 19일 함안에서 열린 함안군 주최 '도덕성회복운동 실천결의대회'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찬불가 음성공양



송춘희법사는 17일 청주 화장사에서 진행된 관음재일기도 입재에 참석, 법문과 찬불가 음성공양을 펼쳤다.

울산서 금강경 강의



김재용법사(금강경독송회 회장)는 27일 오후 5시 울산 금강경독송회관에서 금강경강의를 시작한다. 울산법당 금강경강의는 이날 강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0522)45-0337

춘향가 판소리 공연

명창 안숙선씨는 26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모far상설무대에서 판소리 공연을 펼친다. 무형문화재 박귀희씨를 은사로 가야금병창을 전수받은 안숙선씨는 이날 '춘향가' '수궁가' 등을 공연한다.

전국 시청자 연수회 참석



김재일회장(보리방송모니터회)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충남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방송위원회 주최 전국 10개 시청자단체 대표자 연수회에 참석,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발표했다.

26회 동방연서회전 열어



여초 김응현선생(서예가)은 16일부터 22일까지 문헌궁 미술회관에서 열리는 제26회 동방연서회전에 행서체로 쓴 "삼연자초추만조(三硯子初秋晩鳥)"를 출품했다.

정치와 여성관련 강연



강선영의원(민자당·전국구)은 21, 22일 양일간 충북 수안보 조선관광호텔에서 '여성정책의 변화와 전망'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란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자당 여성문제 연구회가 주최한다.

제22회 불교 학술회의 참석

한종만교수(원광대 원불교학과)는 지난 11일 동국대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주최 제22회 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회에 참석, 「원효의 노자사상과의 회통」에 대해 발표했다.

'도덕성회복운동…' 참석

정동호의원(무소속, 의령·함안)은 지난 19일 함안에서 열린 함안군 주최 '도덕성회복운동 실천결의대회'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찬불가 음성공양

송춘희법사는 17일 청주 화장사에서 진행된 관음재일기도 입재에 참석, 법문과 찬불가 음성공양을 펼쳤다.

울산서 금강경 강의

김재용법사(금강경독송회 회장)는 27일 오후 5시 울산 금강경독송회관에서 금강경강의를 시작한다. 울산법당 금강경강의는 이날 강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0522)45-0337

춘향가 판소리 공연

명창 안숙선씨는 26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모far상설무대에서 판소리 공연을 펼친다. 무형문화재 박귀희씨를 은사로 가야금병창을 전수받은 안숙선씨는 이날 '춘향가' '수궁가' 등을 공연한다.

전국 시청자 연수회 참석

김재일회장(보리방송모니터회)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충남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방송위원회 주최 전국 10개 시청자단체 대표자 연수회에 참석,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발표했다.



◇ 이익중생을 목적으로 모인 무량회는 성지순례는 물론 불서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탐방

무량회

복지시설과 결연·도서관도 운영

'상보에 귀명하여 반야지혜를 완성하겠습니다.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보살의 길을 가겠습니다. 직장의 발전을 위하여 이익중생을 이상으로 삼겠습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법당에 들러 이렇게 서원하는 불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

불교의 '자비희사'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원림직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내 불자회인 무량회(회장 우경화)는 91년 10월, 12명의 인원으로 창립돼 현재 1백50여명의 회원을 가진 내실있는 직장 신행단체다.

대주 금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있는 무량회는 그동안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 권기종·정병조 교수(동국대), 석주·월운스님등 학자와 임로스님을 초청 교리공부를 해온 구도적 단체로도 알려져 있다.

포교부, 구도순례부등 5개부서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량회는 월 1회 회원의 주제발표와 사찰성지순례, 법문순례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회원가족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법회참여도 적극 권장하는등 지역포교에도 온힘을 쏟고 있다.

신행활동 외에도 무량회는 창각장애인을 위한 연화복지학원을 비롯 고아원, 양로원, 결핵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다방면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자체회비로 율림직공원내 모범환경미화원과 경비원 4명에게 분기마다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초기 법당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무량회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2백여권의 불서를 소장한 도서관 〈무량서가〉를 보유하고 있을만큼 국민체육진흥공단내 다른 종교단체를 훨씬 앞지르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문발간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의 초청법회설법을 모아 법문집을 발간하고 무량소식지도 만들 계획인 무량회는 다른 직장 불자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무량회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원태 사무국장은 "불자라면 마땅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무량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라며 앞으로도 한차원 높여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무량회가 될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

(한영우 기자)

게시판

▲대불련 11월 종등문화=대불련 종등문화(회장 명호근)는 11월 28일 오후 7시 신당동 소재 삼일선원에서 '11월 종문의 날' 모임을 갖는다.

이날 종문화에서는 희종수씨(대불련 1기)의 '이 시대의 보살상'을 주제로 한 강론과 친교목적의 종문의 밤이 이어진다. (02)237-5751

▲김장 담궈드리기 후원자모집=길음복지관(관장 제원)에서는 불우한 이웃에게 "겨울김장 담궈 드리기"행사를 마련, 후원해 줄 개인이나 단체를 기다리고 있다. (02)985-0161~4

▲불교문화센터 회향 사찰순례=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는 11월에 끝나는 8기강좌 회향을 위한 사찰순례를 30일 갖는다.

사찰순례단은 김현 국장사, 도리사를 돌며 참배 및 정근을 하게 되고 인솔자는 혜담스님. 회비는 2만원. (02)703-0108

▲국토순례 나선다=국토순례모임 '터 사랑'(회장 전숙희)'은 제 4회 국토순례를 오는 26·27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번 국토순례단은 해남 두륜산 대흥사, 달마산 미황사, 강진 무위사, 땅끝마을 녹수강(고산 윤선도 고택)등을 돌러 본다.

안내는 이세용씨. 26일 오전 7시 30분 구 덕성여대 앞 출발예정. 회비는 4만원이다. (02)725-1284

▲논산에서 익산까지 기행=두레생태기행(회장 김재일)은 11월27일 충남 논산에서 익산까지 고적답사를 떠난다. 충남 논산군 개태사,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전북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오층석탑, 고도리 석불입상을 답사.

회비는 2만5천원. (02)712-5812

▲불교사진반 모집=대한불교신문은 매주 수요일 3개월간 사진기술을 익힐 불교사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051)867-1515

▲사무실 이전=동국불교신문사 서울국 사무실이 용산구 갈월동 71-1 인화빌딩 202호로 이전했다. 새전화 (02)712-7047~8 팩스 712-7047

결혼 ▲조병찬기자(불교신문사)=11일 27일 낮 12시 대구 인의동 고려예식장에서 김정인양과 화촉(02)733-1604

부음 ▲명호근씨(대불련 종등문화회장)=만형 원근씨 16일 오후 12시30분 별세. 18일 발인(02)237-5751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자비의 집

노인들에게 매일 점심공양

3백여명 자원봉사…벽지어린이 초청도



◇ 자비의 집은 무의탁노인들을 위해 매년 경노잔치·야유회를 마련한다.

"할아버지, 오늘은 굉장히 멋있어네요"

"10년은 젊어지신것 같아요."

서울 마아동, 상계동 소재 자비의 집(회장 종관)은 일찍감치 나온 노인들의 상례입으로 가득하다.

오늘은 자비의 집에서 매일 점심공양을 받고 있는 무의탁노인들을 모시고 뚝가을 단풍이 물든 도봉산 도선사로 야유회를 가는 날.

도선사행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새벽부터 모여든 노인들은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나 한다. 의지할 곳 없이 혼자사는 할아버지, 맞벌이 나간 아들과 며느리로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노인, 70이 넘은 나이에도 어린 손자·손녀를 뒤보아야 하는 할머니 등 상계·마아동에서 '자비의 집'에 점심먹으러 오는 노인들은 하루 한끼 챙기기도 힘겹기만한 무의탁 노인들이다.

오랫만에 답답했던 도심을 떠나 산사를 찾아서인지 법당에 들러 예경하는 모습들이 진지하다.

도선사에서 마련한 맛있는 된장국으로 점심공양을 한후 이어지는 놀이마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동안의 시름을 잊은듯 장기자랑에 열심이다. 좁추 춤을 추는가 하면, 디스코를 젊은이 못지 않게 추는 노인이 있고, 세마치, 굿거리 장단에 맞춰 근사하게 춤솜씨를 발휘하는 노인도 보인다.

마이크를 잡은 모습이 쑥스러운지 연신 어색해 하는 모습이지만 구성지게 부르는 '눈물젖은 두만강'은 엘레한 영롱 박수를 이끌어 낸다.

항상 노인들을 찾아 즐거운 한 때를 갖는 만속문화연구회원들의 북, 장구, 꽹과리 소리에 맞춰 자원봉사원들과 함께 어깨춤을 덩실 덩실 추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는 자비의 집 관계자들의 마음이 훈훈하다.

자비의 집에서는 정기적인 경노잔치, 야유회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산간벽지의 어린이를 초청, 명소를 견학시키고 격려한다.

봉사회원들은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각 가정에서 안쓰는 냄비비전, 라디오, 의류등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무료로 제공하는 일도 빠뜨릴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다. 자비의 집은 현재 1천여여명의 후원회원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회비와 자원봉사자 3백여명의 따뜻한 손길로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자비의 집에서는 남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효과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작업을 제공, 생활인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있다.

자비의 집에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해 오고 있는 신응균총무는 "노인분들의 업글에 웃음이 가득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외지할 곳 없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밝은 웃음을 찾아 줄 예정"이라고 말한다.

(김중근 기자)

불 교 성 지 순 례

인도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요.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순례일정표

제 1일	12시 45분 대한항공 631편으로 방콕 향발
제 2일	방콕—카트만두(수와이 템브넛, 라마불교 사원 참배)
제 3일	히말라야산(원숭이 사원, 구미로 사원등 순례)
제 4일	카트 만두—**룸비니** 순례—소노울리
제 5일	소노울리·발람푸르(기원 정사 순례)
제 6일	발람푸르—**쿠시나가르**(부처님 최후의 설법지, 열반지, 화장터등 순례)
제 7일	쿠시나가르—바이살리(아난다 탑, 부처님 사리탑등 순례)
제 8일	파트나—라자기르(죽림 정사 순례)—**브다가야**
제 9일	**브다가야**(마하보디 대탑)—**사르나트**(녹야원 참배)—바라나시
제 10일	바라나시(갠지스강 유람)—아그라
제 11일	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등 순례)—보사월
제 12일	보사월—아잔타 석굴—오랑가바드
제 13일	오랑가바드—엘로라—봄베이(비치 야경 관광)
제 14일	봄베이에서 06:00시 대한항공 806편으로 서울 향발

출발안내
- **제1차 순례**: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11월 19일)
- **제2차 순례**: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12월 17일)
- **제3차 순례**: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1월 21일)

동참금
W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신청금
W 200,000

수속 준비서류(인도·네팔 비자 포함)
- **여권미소지자**:주민등록등본 3통, 여권용 사진 8장, 주민등록증 인지대:W 45,000
- **여권소지자**: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4장 주민등록증 사본

※참가인원이 단체여행기준에 미달시 출발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대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동참금:655,000 출발일:11/23, 30 12/7,14,21,28
·일정:서울—방콕—파타야—아유티야—방콕—서울

생활 속의 불교를 보며……
미얀마·태국 8日 동참금:1,400,000 출발일:11/25, 12/2, 9
·일정:서울—방콕—앙군—파간—만달레이—앙군—방콕—서울

부처님의 자취를 친견하며……
스리랑카 6日 동참금:1,070,000 출발일:11/25, 12/2,9,16,23,30
·일정: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시기리아—딤불라석굴—캔디—콜롬보—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동참금:645,000 출발일:11/24, 12/1,8,15,22,29
·일정: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해외 여행 상담 및 여권, 비자 수속을 정성껏 대행하여 드립니다.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지회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 (代)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❻

삼보를 비방말라 <不謗三寶>

세상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는 존재

풀 한포기 · 돌 하나도 법신 … 아끼는 마음가져야

마음이 상하거나 미운 생각이 나면 저도 모르게 남을 욕하거나 해치는 행동이 나온다.

고운 마음이나 착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기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불식간에 증오심이나 원한심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대인관계의 살상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매물적 파손 · 파괴 · 폭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가 적개심이 불타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다.

조금만 큰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것이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또, 밝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우물의 물을 나누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한강물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대산이나 태백산의 하늘끝 샘에서 솟구쳐 흐르는 물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이고 인도 사람들은 아욕달수를 먹고 살고 있다. 이처럼 한 하늘 아래에서 맑은 바람으로 쉬고 하늘 끝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로 피로 만들면서 살고 있기에 사람과 사람사이에 미움이나 원수가 있을 수 없다.

내 믿음 · 남의 믿음

그런데 사람들은 제 믿음이 넘쳐 흘러 남의 믿음을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제 믿음이 소중하고 아담한 것이라면 남의 믿음도 귀하고 존엄한 것이다. 근자에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도 없지만 원각사 탑신의 부처님 보살상을 예리한 도구로 훼손시켰다고 한다. 무서운 일이다.

어찌 불교도의 신불대상인 탑상을 손괴 괴멸시킬 수 있단 말인가. 보통 눈으로 보면 돌을 깎아 세운 탑상이 무엇 신이한 일인가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가에서는 탑상이 중요한 존숭물이고 예배의 대상이다. 옛부터 탑상에는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처럼 섬겼다.

생죄에 해당하고 풀한포기를 뽑아도 살생죄라고 하는데 불교인의 정성과 신앙이 스며들어 있는 법신체를 손괴하는 것은 뚜렷한 대역죄임에 틀림없다.

시골의 흙담도 금가게 하면 동네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벼논의 물꼬를 빼어버려도 태장질을 당한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삶의 길이 있는 것이다. 제것이 아까운 것이라면 남의 물건도 그만한 값을 갖고 있으므로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내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조건 내리치는 일은 더욱 나쁜 것이다.

삼보 존경의 의미

우리는 제것의 범위를 확산하여야 한다.

동류의식을 키워나가면 저도 모르게 저 모든것이 나와 함께 있는 생명이요 대상인것을 깨쳐 알게 될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고 한것은 불교 교단의 권위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계명(誡命)만이 아니다.

법신의 존엄함을 우러러 높이는 것은 일체의 생명을 존귀하게 모시는 마음을 발로하자는 것이다.

모든 자연은 법신의 다른 모습이다. 풀, 돌, 물, 이것은 인간의 소유물이고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소유가 잘되지 않고 또한 정복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으면 강압적인 억지를 쓰게 된다. 강압의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인간은 증오하며 원한심의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 이것은 곧 손괴, 파괴를 발동하는 것이다. 우리들 인간 마음속에 삼보법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자리가 삼보비방을 중지하는 법안이 된다. 법안이 광명처럼 환하게 열린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면 증오적 파괴심이 가라 앉을 것이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석조로 된 문화인듯 하지만 아니 문화라고 한다면 중요한 일이다. 문화는 오늘에 이루어 진것이 아니고 역사의 연륜이 아로새겨진 선대 예술인의 정신이 함장되어 있는 것이다. 석물이건 탱화이건 부도이건 간에 이 모든 것은 불교인의 신앙적 의지처인 것이다.

〈범망경〉에 삼보를 비방하면 안된다는 불방삼보계(不謗三寶戒)가 있다. 삼보는 부처님, 부처님의 교설, 부처님을 신앙하는 사부중이다.

생각해보자. 부처님은 법신불로서 진리의 광명이다.우리들 마음속에 광명의 체성을 현발하려는 마음은 본래부터 우리들이 불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불성은 일체 중생이면 누구나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신의 체성으로 우주에 가득하고 있지만 우리 중생들은 육안으로 인식되고 인영되지 아니하면 안되기에 부처 모습을 존경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재로는 조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존상은 법신의 다른 모습인 것이다.이 법신체를 예리한 도구로 파손한다는 것은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남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범한 것이다.

물속의 버러지를 먹어도 살

"돌 버릴 줄 알 때 수 보이죠"

산문밖의 禪

바둑 프로 9단 서능욱



"팔정도가 곧 바둑의 정석"

지난 7일 오전 10시. 한국기원 4층 대국실에서 서능욱 9단과 김인 9단이 붉게 상기된 채 마주 앉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백을 쥔 서 9단이 소목으로 포석을 깔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반상위에 깔리고 김 9단 역시 싸움에 응해왔다.

다행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둑판의 싸움꾼이 아니던가. 속으로 패재를 부르면서 왼손에서 굴러가는 염주에 힘을 주었다.

"열적수만 조심하면 …"

바둑 전문기사 서능욱씨(37). 그의 기력은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다는 입신(入神) 9단이다. 14세에 입단하여 18년만에 정상에 올랐으니 바둑에 관한한 단시간에 일가견을 이룬 것이다.

왕십리로 자리를 옮긴 한국기원에 들어설때까지 '신의 사나이'를 찾는 마음에서 흥분까지 일었다.

"단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1단이나 9단이나 프로에게는 기량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프로 9단이시죠"라는 인사말에 9단의 의미를 간단히 묵살하는 것이 시원스럽다.

유난히 큰 얼굴이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마냥 둥그럽고,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속전속결의 명수답게 신상 탐색의 여유도 주지않고 바둑에 관해 거침없이 쏟아낸다.

"첫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싸움이냐 아니면 실리를 취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판에서 몇번의 승부수를 느낍니까."

"바둑알 한알 한알이 모두 승부수입니다. 이는 곧 유혹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리수를 두거나 싸움을 걸어오면 참지 못하고 '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시작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프로는 단순히 지고 이기는 것을 떠나서 바둑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 서 9단의 지론이다.

91년 KBS 바둑축제때 1백11명을 상대로 7시간 40분에 걸쳐 다면기를 소화했다. 세계 최다다면 기록이다. 이러한 서 9단의 기풍은 속기를 원하는 TV바둑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TV바둑프로를 인기프로로 정착시키는데 최대의 공헌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서 9단에게는 팬 많은 바둑팬이 있다.

그러나 '신의 사나이' 서 9단도 빠른 바둑에서 최대의 걸림수인 덜컥수만은 피해가지 못한다. 아직 국내 13개 타이틀 가운데 하나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은 대부분 덜컥수에 걸린 때문이다.

16번이나 정상의 문턱에서 꺾였으니 패배에도 달관해 있지 않을까하여 시합에 졌을때의 심정을 물었다.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혼을 팔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순간입니다. 대국장을 나서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며 잊어버립니다. 바둑에서 돌을 버릴줄 알아야 하듯 어디에서나 집착하지 않고 잊는 것이 고수의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서 9단에게는 5년전 부인 현인숙씨가 건네준 염주가 있다. 오른손목에 단주를 차고 왼손으로 염주를 굴리다보면 마음보다 더 빠르게 나가는 손을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시다.

"염주가 덜컥수를 해결해 준다면 기복신앙이지요. 바둑에 빠지다 보면 염주마저도 잊혀집니다. 이때부터는 얼마나 바른 눈을 '가졌느냐입니다. 바른 눈을 가져야 바른 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팍한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바둑의 정석은 정도(正道)입니다."

바르게 보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라는 부처님 가르침 팔정도(八正道)가 바둑의 정석이라는 서 9단의 바둑관이 계속됐다.

"바둑의 위기십결(圍棋十訣) 가운데 사소취대(捨小取大)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바둑도 당연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선(禪)에 1천7백 공안이 있듯 바둑판에서의 수는 곧 하나 하나가 공안이다.

1천6백년 전 중국의 동진시대에 지도림(支道林)이란 스님은 바둑을 수담(手談)이라 했다. 두사람이 마주 앉아 입으로는 말이 없이, 손으로 바둑알을 움직여 서로의 의사를 표현한다 하여 이른 말이다.

바둑판에서 돌이 치워지고 나면 홀연히 태초로 돌아간다. 동요, 결단, 환희, 고통으로 뒤범벅된 한판의 바둑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자리는 다시 비어버린다. 또다시 이곳에는 새로운 세계가 그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 *"바둑판에서 돌이 치워지고, 동요 결단 환희 고통으로 뒤범벅된 한판의 싸움도 사라진다. 그 자리는 다시 비어 버린다."*

이를 일러 혹자는 기선일여(棋禪一如)라 한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차분히 가라앉아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무아경.

"바둑은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할 때 좋은 수가 나옵니다."

서 9단은 일본의 오오다케(大竹) 9단의 기풍을 좋아한다. 바둑의 낭만파라 불리는 오오다케 9단의 바둑은 너무 맑아 기량에 비해 성적은 나쁜 편이다. 서 9단도 그렇다. 깨끗한 바둑이다 보니 성적이 좋을 리 없다.

금년에도 20승 20패. 간신히 승률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의 시합은 기성전 25국째, 생각지 못한 김인 9단의 싸움판 합세에 손오공 서능욱 9단의 여의봉이 모처럼 신바람을 냈다.

30수가 이번 시합의 승부수가 됐다. 축머리를 이용한 바꿔치기로 시합 3시간만에 백 17승 반집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오늘은 제 마음이 깨끗했나 봅니다."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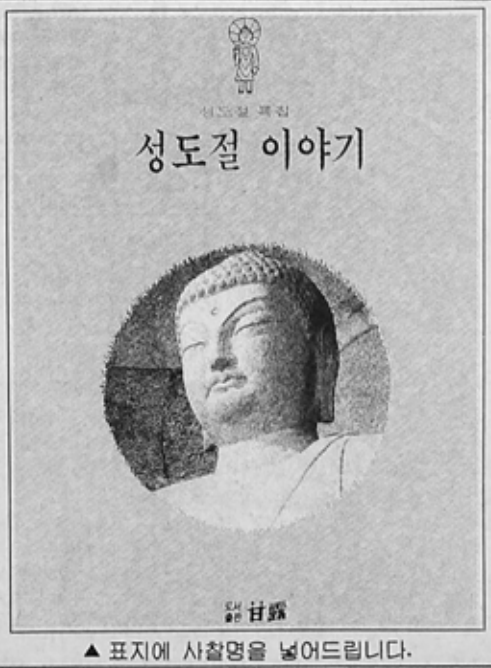
성도절 법회때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법회 설법자료및 법보시 책자 보급안내

성도절 법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성도절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성도절 발원문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1. 예언은 적중하고
2. 왕궁에서 숲으로
3. 오로지 도를 얻고자
4. 신새벽에 성취한 깨달음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제4부 성불에의 길
1.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2. 앞서 간 구도자들
1)앙굴리말라
2)용녀의 성불
제5부 성도재의 노래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200권이상 주문시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넣어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격/1권당 1,000원
⇨ 크기/4×6판
⇨ 책표지에 사찰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장경 (법보시판)

• 크기/4×6판	• 크기/국판(양장제본)
• 법보시가격/1,500원	• 법보시가격/3,000원
• 편집/가로쓰기	• 편집/세로쓰기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200권이상 주문시)

〈온라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 로 출 판 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법륜BD 1층
☎ (02)723-4306~7 FAX (02)738-8682

"화쟁은 세계와 인간의 본래 모습"

「원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세계학자 열띤 토론


◇이기영박사


◇로버트 버스웰


◇베르나르 포르


◇유베르 듀르트


◇야마오리 테쯔오

원효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조망한 대규모 학술회의가 지난 18.19일 이틀간 타워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주최하고,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이 주관한 이 학술회의는 「오늘날 우리는 원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란 주제로 열려, 국내외 불교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첫째날, 「문화적·종교적 원형으로서의 원효」를 발표한 UCLA의 로버트 버스웰교수는 "원효는 그의 종교적이고 학문적인 업적 때문만이 아니라 토착적 전통의 전개에 깊은 영향을 끼친 그의 인격으로 인하여 한국적 전통의 문화적 모형이 되었다"고 말하고, "동아시아의 불교고승전(高僧傳)의 실례로서 더 가치있는 주제를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전기작가들의 전기(傳記)에 대한 문헌학적 분석을 통해 문화적·종교적 원형으로서의 원효를 조명했다.

이어 스탠포드대학의 베르나르 포르교수는 「사상으로서의 원효의 생애」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원효의 중요성은 그의 학문적 업적에서 보다 살아있는 화쟁(和諍)사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리적인 논문들 속에 반영된 원효는 〈삼국유사〉속에서 옹호되어진 이상적인 실천가와는 비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반종요(涅槃宗要)」를 발표한 유베르 듀르트씨(프랑스 극동학원 연구원)는 〈열반종요〉의 종요를 분석하면 원효가 다른 원문들을 인용할 때 경(經)의 인용문을 대화체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화들은 경의 주요한 뜻을 확실히 나타낼 뿐만 아니라 중국불교의 학문적인 황금기에 원효를 당대 불교의 모든 위대한 거장들과 구별하게 하는 독특한 문체라는 것이 듀르트씨의 주장.

한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의 야마오리 테쯔오(山折哲雄) 교수는 「원효와 명혜(明惠)」에서, 일본 화엄종 부흥자의 한 사람인 명회의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에 묘사되어 있는 몇 개의 광경을 통해 명혜와 원효의 화엄사상을 비교 연구했다.

서울대 의대의 이부영교수는 「일심(一心)의 분석심리학적 조명」이란 독특한 주제로 관심을 모았는데, 이교수는 "〈대승기신론〉과 원효의 소(疏)와 별기(別記)에서 말하는 '일심'은 분석심리학의 심리관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즉 일심은 정신의 전체성,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전체의 마음에 비유될 수 있으며 이 전체의 마음이 되려면 무의식의 의식화가 필수적이라는 것.

또, 「원효사상의 특징과 의의」를 발표한 한국불교연구원 이기영 이사장은 "오직 원효만이 대·소승의 경전을 다 버리지 않고 그 가치질서를 매기며, 회통적(會通的)으로 이해하는 일승(一乘)의 중요성을 알고 끝까지 종파적 편협성과 종파적 투쟁을 배격해 냈다"고 역설하고, 이것이 바로 화쟁사상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둘째날, 교원대 김상현교수는 「원효 화쟁사상의 연구사적 검토」에서 "원효의 '화쟁'은 세계와 인생의 본래 모습을 의미하는 당위이면서 동시에 그의 학문적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불교연구원의 사또 시께끼 연구위원은 「원효에 있어서의 화쟁의 논리」에서 원효사상의 세계성은 법의 세계를 화쟁의 논리, 즉 무이(無二=歸一心源) 이불수일(而不守一=饒益衆生)이라는 사상구조에 의해 파악한 점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 사상의 중요성은 자기와 세계를 통합한 진리체계의 장에 자기의 참된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동국대 권기종교수는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에서, "원효의 정토관은 정토와 예토(穢土)가 객관적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개되는 두가지 세계이므로, 정토라는 별도의 공간적 영역이 있어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토"라고 말했다. 즉, 아미타불의 정토 세계도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알찬 논문들이 발표돼, 원효학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경 기자〉

사회 행복 추구가 공동목표

대만 「정치와 종교」 학술회의서 홍윤식교수 주장


◇홍윤식교수

대만 정각불교연구소(소장 정심)가 주최한 제7회 국제불교학술회의가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한, 중, 일에서 모두 10여 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석 '종교와 정치'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측에서는 한국불교대학의 석가산스님과 동국대 홍윤식교수가 참석, 「조선왕조의 불교 탄압과 당대 한국의 불교 개혁」과 「종교와 정치」를 각각 발표했다.

홍윤식교수는 "종교와 정치는 역사와 사회를 향해 행복의 추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 행복 추구가 양자의 공동 목적이라고 하면, 정치와 종교는 권력과 신앙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서로 상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정치와 종교'라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국내외 불교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철학과 지성 조망

정문연 세미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현재) 철학·종교연구실은 지난 18일 대강당에서 「현대 한국철학에 있어서 창조적 지성의 방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동양철학분야 및 서양철학분야와 동서비교철학의 연구방법론을 검토하여, 한국철학이 향후 지향해 나갈 창조적 지성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동국대 철학과 김용정교수가 「동서비교철학소론」을, 한신대 철학과 나성교수가 「현대한국철학에 있어서 창조적 지성의 문제」를, 정신문화연구원 정해창교수가 「철학적 전환과 창조적 지성:한국철학의 발전을 생각하며」를 각각 발표했다.

통일·도덕성 회복위한

종교계의 역할 토론

문화체육부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공동으로 지난 17~19일 삼일간 서울 한국의 집과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범종교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유교 등 7개 종교 지도자들 백십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 민족의 최대 과제인 남북통일과 건강사회의 근간이 되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 종교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 정진홍교수가 「21세기를 대비한 종교인의 역할」이란 기조강연을 했고, 구종서박사(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와 성균관대 송하경교수가 각각 「남북통일과 종교인의 역할」·「도덕성 회복과 종교인의 역할」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불교계 인사들은 부처님의 정신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해유적지에 고구려 절터있다"

극동대 샤프쿠노프교수 발표


◇샤프쿠노프 교수

재단법인 고려학술문화재단(이사장 김유경)은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7회 한국민족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중국 동북지방과 연해주에서 조사된 고구려와 발해유적을 중심으로 이 지역 민족사를 조명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구려의 북방영토 경계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고구려 책성(柵城)의 위치 △연해주의 발해유적과 정치 △고구려 천리장성 현황등 고대사의 쟁점들에 관한 주제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러시아 극동대의 샤프쿠노프교수는 「연해주의 발해유적」이란 논문에서 발해시대의 것으로 편년된 연해주지역 유적지들의 현황을 보고하면서, 최근 발굴된 5개의 사원(寺院)유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목받았다.

그는 발해의 불교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사원유적에서 발견되는 암자들중에는 고구려인들에 의해 건립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 사원들과 함께 현재까지 발견된 발해 문화권의 최북단에 해당되는 마리야노프스키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물보시와 마음공부 차이는

문 학식이 높거나 재력이 넉넉해서 남에게 베풀다 가는 사람과 현실의 능력은 없어도 마음공부하다 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지요.

(충북 음성군 금왕읍·최정례)

답 재산이 많아서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여도 그것이 50%라, 유위법이니 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공부하면서 마음으로 공덕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됩니다.

재력과 능력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의 보시란 세세생생을 건지는 것이고 무명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되 물질적 보시에 그쳤다면 아무리 보시를 많이 했어도 공덕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했지만 공덕이 되진 못합니다.

한반도에 또 전쟁이 납까요

문 북한 핵문제가 일단 타결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동태를 보면 아직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25를 겪은 세대라서 전쟁걱정을 자주하게 되는데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는지요.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박진영)

답 나는 전쟁이 안난다고도 하지 않고 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달린 문제지요. 국민들이 뭇방귀 탕 뀌면 탕 뀌는 대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아니, 사람의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부처님의 마음과 머불어 물이 아니요, 우주하고도 물이 아니요 세상하고도 물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핵을 만약에 그렇게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주물러서 만든 것이지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소폭탄이 있고 무슨 핵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탄이 있기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모양입니까

문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스님께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대 자연대·최재성)

답 우주도 이름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가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벼룩만한 것이 우리 몸뚱이 안에 들어 왔다고 합시다. 그 벼룩만한 게 보기에 오장육부만해도 얼마나 크고 광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의 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 속에 뜰은 별성들을 형성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생산해 내고 들이고 또 생산해 내고 들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주도 생산할 때 생산하고 거둘 때는 또 싹 거두어 들이고 작용하며 삽니다. 우리가 자금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를 생각할 수 없죠. 우리들 중에 마음이 큰 분, 작은 분이 있듯이 우주의 생산작용도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써 크다 작다, 요모양이다 조모양이다 하겠습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문 국민학교 3학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장순희)

답 강단에 설 때에 반드시 '주인공,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하지 않겠어!' 하고서 일체를 자신의 근본자리에 맡기세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껍데기가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을 외고 절을하는게 덕이 됩니까

문 여러 경전마다 '이 경의 사구게 하나만이라도 수지 독송하면 그 공덕이 칠보로 수미산을 장식한 것 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찰에서 백팔배, 일천배, 삼천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 중구 장교동·박종열)

답 나무로 비유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잎사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도 많고 잎사귀는 더 할나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경을 그냥 읽는다면 입일이 잎사귀를 세는 것과 같고, 또 백팔배니 천배니 하면서 절을 할 뿐이라면 가지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에 잎새와 가지가 있는 것을 알면 반드시 뿌리가 있음도 알 것이기에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를 뿌리에 돌려야 합니다.

철 따라서 잎새 돋고 꽃피고 열매맺고 낙엽지는 게 다 뿌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뿌리는 마음입니다. 뿌리에 물주고 거름주면 잎사귀나 가지를 쓰다듬어 주지 않아도 나무는 싱싱하고 푸르르듯이 그렇게 뿌리를 믿고 모든 게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을 읽되 경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경을 보지 않는 이치가 나오며 절을 하되 절하는 사이가 없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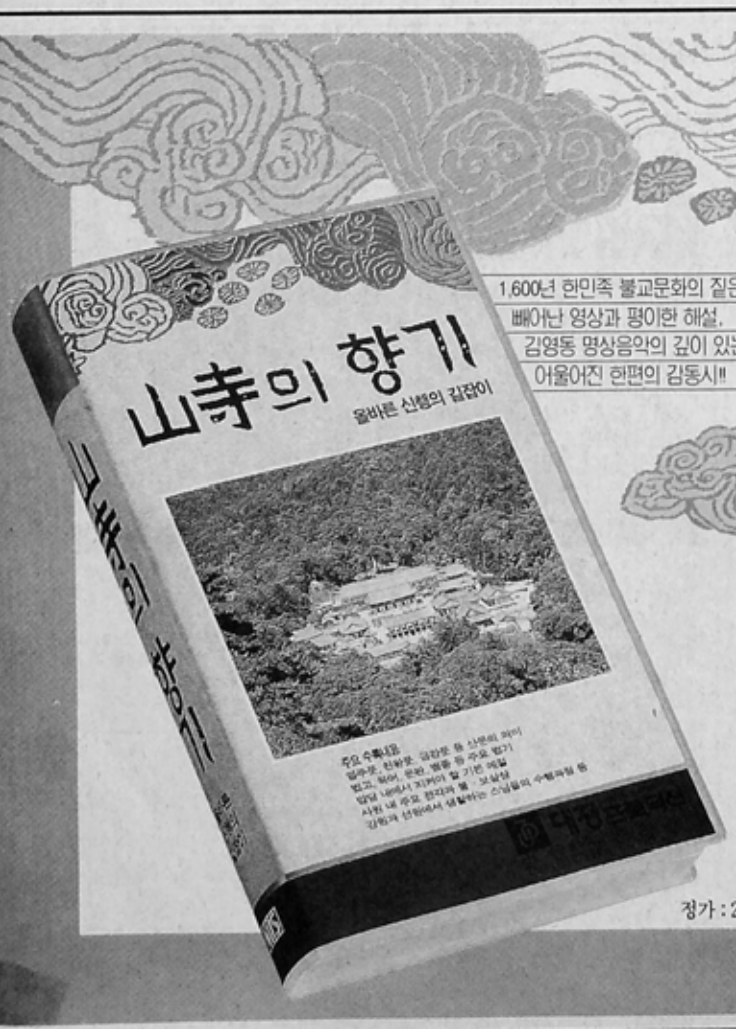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1,600년 한민족 불교문화의 짙은 향기가
빼어난 영상과 평이한 해설,
김영동 명상음악의 깊이 있는 선율로
어울어진 한편의 감동시!!

정가 : 20,000원

山寺의 향기

불자들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 바로 그 비디오!!
사찰의 모든 것이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사찰이란 어떤 곳인가.
일주문·천왕문·금강문 등에는 무슨 뜻이 있고,
대웅전·적광전·극락전은 어떤 법당인가.
또 사찰에 모셔져 있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모셔야 하나.
오랜 동안 불교를 신행해온 신자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찰의 모든 것을
한 편의 비디오로 쉽게 배운다.

주요 수록내용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등 산문의 의미
법고, 목어, 운판, 범종 등 주요 법기
법당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사원 내 주요 전각과 불·보살상
강원과 선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정 등

대정프로덕선 DAE JEONG FILM PRODUCTION
서울·중구 을지로 3가 302-2 승팔BD 601호
구입문의 : ☎(02) 275-9459 · 265-9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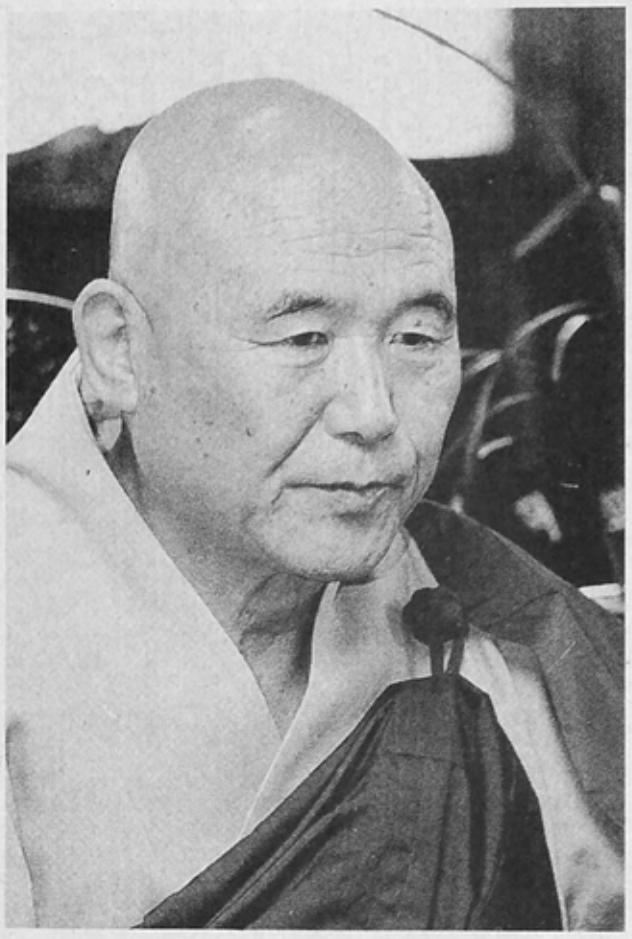
수 요 인터뷰

"불교 재도약 위해 고통 감수 했어요"

탄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대담 :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개혁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개혁회의의 역할을 평가하신다면.

▲불법에 개혁이란 있을 수 없지요. 다만 시대적 문화적 환경이 변했으니까 그에 알맞는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거나, 불법의 정신을 이 시대에 꽃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개혁이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불교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고통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종헌종법 개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난산 끝에 선보이게 되어 그만큼 보람도 있었지요. 또한 개혁회의에 대한 반동세력의 준동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혁회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소송제기도 사양치 않았지요.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불보살의 가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개혁회의에 처음 참여했을 때와 지금의 심정은.

▲처음에는 젊은 스님들의 호법의지를 격려하기 위해 동참했는데 개혁회의를 총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현재의 심정은 매우 담담하며, 이제 수행자의 고향인 수행도량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쁩니다.

수행도량으로 가야죠

—개혁회의를 마무리 하신 다음의 개인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법주사에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안에 태전사(泰田寺)란 포교당을 짓고 있는데 상경 전에 그 일을 관리 감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려가면 전법도량을 원만히 건립하여 포교불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매우 혼란합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불교의 역할은.

▲조선시대 이래 한국불교사는 글곡의 역사입니다. 원인은 승려들의 수행이 부족했던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승단의 자기 반성이 절대 부족했던 점도 한 원인이지요. 이제 승단이 교육에 힘쓰고 대중교화에 노력한다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사상적 윤리적 지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교가 일반 대중들과 더욱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불교를 어렵다고 합니다만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쉬운 것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8만대장경이 모두 수행 방법에 대한 기술이지요. 자기 마음을 닦아 그것을 깨치는 것이 불교인데 모르니까 어렵다고 단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문서·시청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중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가의 수행 풍토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젊은 승려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수행방법은 한결같아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이나 포교의 방법은 바뀔 수 있겠지요. 젊은 스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계율을 수행의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투영된 승려의 모습은 대처·음주·육식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계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종회가 대폭 젊어졌습니다. 새 종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경험이 많고 수행이 원만하신 스님들이 종단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면 더없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종단에서 활동하던 스님들은 이루어 놓은 업적이 많은 만큼 또 한편으로 끊임없이 발생한 분규에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교육받고 의식이 건전한 승려들이 대거 종회에 진출한 것은 우려보다는 매우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될 수 있고, 신선한 기풍이 종단 안팎에 조성되리라 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도덕부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의 역할은.

▲한국인이 지닌 사대적인 의식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서 가능하지요. 즉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불교적 수행이 절실합니다. 또한 불교는 부모·나라·중생·부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을 현양하면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종헌 종법대로 운영하면 종단발전

불교를 어렵다고 합니다만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쉬운 것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8만대장경이 모두 수행 방법에 대한 기술이지요. 자기 마음을 닦아 그것을 깨치는 것이 불교인데 모르니까 어렵다고 단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계율은 수행의 어머니

—한국불교가 세계화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한국불교는 현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며, 나아가 승려교육이 여법하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철저한 수행풍토를 조성한다면 분명 세계불교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선납자로서 참선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을 수행하면 남녀·노소·빈부·승속을 막론하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란 누가 시켜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시간을 아껴 참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선의 대중화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득이한 선택

—21일로 새 총무원장이 선출됩니다. 차기 총무원장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개정된 종헌종법대로 여법하게 운영하시면 잘 되리라 봅니다. 모쪼록 종단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개혁을 지지해 주신 종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혁과정에서 서암스님을 비롯 일부 스님들께 누가 있었던 점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종단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법하게 수행하시는 분들께 혹여 누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교 발전을 위한 아픔이었다 생각하고 종단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혁 225일

▲ 94. 4. 10 : 조계사 전국승려대회
▲ 4. 13 : 조계사 범불교도 대회. 서의현 총무원장 사퇴. 원로회의 개혁회의 인준. 개혁회의 현판식
▲ 4. 15 : 중앙종회 해산 결의
▲ 4. 19 : 개혁회의 시무식
▲ 4. 22 : 개혁회의 (의장 월하) 본회의 개최. 월하스님, 국민과 종도에서 드리는 답화문 발표 (종도에게는 개혁 동참, 국민에겐 개혁성취를 위한 이해와 협조, 정부에 대해서는 법난유발에 대한 유감 표시)
개혁회의 김영삼 대통령에 '대통령 공개 사과, 최형우 내무장관 사퇴' 요구 공개서한 보내고 27일까지 답변요구
▲ 4. 26 : 서암스님 종정직 사퇴. 참회 성명 발표
▲ 5. 3 : 동화사 은해사 선본사 보문사 직영사찰 지정. 청하 일타 도원 성수 벽암 수산스님 원로의원으로 추가 선임
▲ 5. 10 : 용주사 봉선사를 필두로 전국 본말사 공청회 시작
▲ 5. 13 : 제9대 종정 월하스님 추대식 (조계사)
▲ 5. 28 : 조계사 및 각 교구본사별로 3. 29, 4. 10 법난 책임 추궁 백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 5. 29 : 정혜도량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앙승가대 정진관)
▲ 6. 7 : 무공스님 동화사 주지 취임, 동화사 본말사회의 개최해 개혁동참 선언
▲ 6. 8 : 승가교육 개혁을 위한 세미나(중앙승가대). 은해사주지 일타스님 임명
▲ 6. 10 : 개혁회의 상무대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 조기현씨 처벌과 공정조사 촉구성명 발표
▲ 6. 16 : 최형우내무장관 조계종 총무원 방문, 법난에 대한 유감표시
▲ 6. 18~19 : 범종추 개혁성취 결의법회(조계사)
▲ 6. 22 : 개혁회의 의장 석주스님 선출
▲ 6. 28 : 초심호계위원회 개최, 의현 규필 보일 무성 원두스님 체탈도첩
▲ 7. 6 : 2백여 철도·지하철 노동자 수계식(조계사)
▲ 7. 11 : 월하중정, 탄성총무원장 청와대 방문
▲ 7. 13 : 16인 종헌 종법개정안 기초위원회 구성, 9인 종헌 전문심의위원회 구성
▲ 7. 19 : 불국사주지에 설조스님 임명
▲ 7. 20 : 봉은사 주지에 무상스님 임명. 광불협 법타스님과 이지범씨 국보법으로 구속
▲ 7. 23 : 재가불자연합 창립
▲ 8. 9 : 황진경스님등 34명 총무원장 탄성스님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
▲ 8. 10~11 : 제 6차 개혁회의. 종헌 개정안 심의·의결, 차기 총무원장 직선 선출, 복지·교육·포교사업강화, 3권분립, 종회의원 겸직금지, 교구종회 신설 의결
▲ 8. 18 : 전국 선원 수좌회 창립(해인사, 3백여명 참석) 제방의 선원청규 확립, 종헌 65조 2·3항 삭제등 요구
▲ 8. 29 : 법난대책위 '불교자주화토론회' 개최(불교회관), 종단 목적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정휴스님. 중앙승가대 이전 및 정규대 승격, 불교병원 건립, 불교관계법 개정 군법사 비율조정 등 목적 사업 확정
▲ 9. 1 : 23개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개혁회의 정통성 재확인, 해종행위 세력에 대해 경고
▲ 9. 24 : 범종추 개혁종헌 통과를 위한 단식정진 시작
▲ 9. 27 : 제9차 개혁회의 종헌 심의 의결
▲ 9. 29 : 원로회의 개정종헌 인준 선포. 재심호계위, 진경스님 체탈도첩 확정
▲ 10. 6 : 종단개혁불사 보고법회(통도사)
▲ 10. 10 : 제10차 개혁회의, 중앙종회법등 8개 종법 제정 개정. 개혁회의 2개월 연장
▲ 10. 11 : 백양사주지에 지선스님 임명
▲ 10. 18 :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 활동보고 기자회견
▲ 10. 20 : 중앙·교구종회의원 후보 등록 시작
▲ 10. 27 : 종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 불국사주지 설조스님 진산식
▲ 10. 29 : 원각사지 10층 석탑 훼손에 따른 성명서 발표
▲ 10. 31 :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으로 유명 달리한 영가천도 위령제 봉행
▲ 11. 4 : 황진경 외 16인 종단소송 각하
▲ 11. 7 : 제 11대 중앙종회의원 48명 직선
▲ 11. 8 : 직능 및 비구니 종회의원 30명 선출
▲ 11. 9 : 총무원장 후보에 월주·월탄스님 등록
▲ 11. 14 : 각 교구별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 11. 16 : 제11대 종회 개원, 신임 종회의장에 설정스님 선출
▲ 11. 21 : 총무원장 선출
▲ 본 말사 주지 인사 총 190건

석림불교아카데미

직장인, 전문인, 주부, 대학생 등 일반시민을 위한 불교사회학교

통신과정 : 지방에 거주하는 분과 강의 출석이 어려운 분을 위해 교재도서와 강의 녹음 테이프를 1주일 단위로 우송해 드리는 통신강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깨달음의 숲 진리의 삶"

- 석림불교아카데미는 사회, 역사, 문학 등 각 분야에 걸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내는 현장입니다.
- 석림불교아카데미는 전문 분야에 계신 스님, 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토론하는 불교사회학교입니다.
- 석림불교아카데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에 대한 올바른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일구어 가는 시민의 학교입니다.
- 석림불교아카데미는 1학기 과정이 3개월이며 매주 1회(90분)강의로 진행됩니다.

제1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0월 15일부터 석림동문회 사무실
대 상 : 직장인, 전문인, 주부, 대학생 등 일반 시민
강의 요일 : (수) 오후 2시 / (토) 오후 3시 중 택일
문 의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301호
· 전화 : (02) 722-2215 · 팩스 : (02) 739-2047
개강일 : 1994년 11월 30일(수), 1994년 12월 3일(토)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 빌딩 301호
전화 : 722-2215 / 팩스 : 739-2047

회비는 학기당 6만원(교재비 포함)

1기 강의내용 및 강사(강의 진행순)

1. 포스트모더니즘과 열린 종교
윤영해 / 동국대 강사
2. 아함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육성
성열 스님 / 강남포교원장
3. 반야의 세계
석우 스님 / 반야정사
4. 유마의 가르침
원명 법사 / 전 해군 군종감
5. 법화경의 세계
현해 스님 / 동국대 강사
6. 현대사회에서 미륵사상의 실천적 과제
월탄 스님 /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7. 불교미술기행
진철문 / 조각가
8. 선의 역사
성본 스님 / 중앙승가대 교수
9. 달마 이야기
동성 스님 / 서화가
10. 열린 사회와 불교의 역할
진관 스님 /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11. 불교와 문학의 관계
지원 스님 / 시인
12. 불교에 습합된 토속신앙
진철 스님 / 동국대 강사
13. 천수경의 올바른 이해
김호성 법사 / 동국대 강사
14. 화엄의 바다
해주 스님 / 동국대 교수

*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5)

夫諸佛諸佛 莊嚴寂滅宮
(부제불제불이 장엄적멸궁은)
於多劫海 捨欲苦行
(어다겁해에 사욕고행이요)
衆生衆生 輪廻火宅門
(중생중생이 윤회화택문은)
於無量世 貪慾不捨
(어무량세에 탐욕불사니라)
無防天堂 小往至者 三毒煩惱 爲自家財
(무방천당에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재요)
無誘惡道 多往入者 四蛇五欲 爲妄心寶
(무유악도에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심보니라)

무릇 모든 부처님이 번뇌망상의 한 티끌도 없는 해탈경지를 장엄하심은 억겁고해에 욕심 여의고 인욕고행하심이요 많고 많은 중생이 삼계화택을 헤어나지 못하고 윤회함은 한량없는 세월동안 탐욕을 여의지 못한 까닭이다.

막는 것 없는 천당에 왕생하는 이가 적은 것은 중생이 탐·진·치 삼독번뇌로 제집 재산을 삼음이요.

유혹하는 이 없는 악도에 태어나는 사람 많은 것은 사대육신과 온갖 욕망으로 망념되어 마음 보배를 삼는 때문이다.

人誰不欲棲山修道 而爲不進 愛欲所纏

중생이 윤회함은 탐욕 여의지 못한 탓

입산수도 못할망정 선행은 외면 말라

(인수불욕귀산수도리요만 이위부진은 애욕소전이니라)
然而不棲山藪修心 隨自身力 不捨善行
(연이불귀산수수심이나 수자신력하야 불사선행이어다)
自樂 能捨 信敬如聖 難行 能行 尊重如佛
(자락을 능사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니라)
慳貪於物 是魔眷屬
(간탐어물은 시마권속이요)
慈悲布施 是法王子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누군들 산에 들어가 도 닦고자 하지 않으리요만 그리하지 못함은 애욕에 얽힌 때문이다.

그러나 산 속에 들어가 마음 닦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힘이 닿는 데로 선행하기를 외면하지 말 것이다.

세간 재락을 능히 버린다면 마치 성인처럼 신뢰와 공경을 받고 육바라밀의 하기 어려운 행을 하면 부처님처럼 존중받게 된다.

재물이나 탐하는것은 곧 마귀의 권속이요 자비보시는 곧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着柔守護 命必有終
(착유수호해도 명필유종이니라)

높은 산 바위 솟은 곳은 지혜로운 이 살 곳이요 푸른 숲 깊은 계곡은 수행자들이 깃들 곳이라.

배고프면 나무열매로 주린 창자 달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마셔 목타는 마음 쉴 것이니 맛있는 음식 먹여 애지중지 길러보아도 이 몸은 끝내 무너질 것이며 부드럽고 좋은 옷 입혀 지키고 보호해도 이 목숨 반드시 끝나고 마는 것.

助喜巢穴 爲念佛堂 哀鳴鳥鳥 爲歡心友
(조향암혈도 위염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환심우니라)
拜膝 如氷 無戀火心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련화심하고)
餓腸 如切 無求食念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라)
忽至百年 云何不學
(홀지백년이어늘 운하불학하며)
一生 幾何 不修放逸
(일생이 기하인데 불수방일일고)

메아리 울리는 바위동굴로 염불법당 도량삼고 슬피우는 기러기 울음으로 마음 기쁜 벗을 삼아 예불 참선에 무릎이 얼더라도 불기운 그리지 않고 주린 배 창자가 끊어지는듯 해도 먹거리 찾을 생각 내지 말지니 눈 깜짝새에 백년세월 가는 데 어찌 배우지 않을 것이며 일생이 얼마나 되기에 닦지 않고 방일하겠는가.

離心中愛 是名沙門 不戀世俗 是名出家
(이심중애를 시명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시명출가니라)
行者羅網 狗被像皮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道人戀懷 蟬入鼠宮
(도인련회는 위입서궁이니라)
雖有才智 居邑家者 諸佛 是人 生悲憂心
(수유재지나 거읍가자는 제불이 시인에 생비우심하고)
說無道行 住山座者 衆聖 是人 生歡喜心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에 생환희심하니라)

마음 가운데 갈애·애착 여읜 이를 사문이라 이름하고 세속 그리움 떨친 것을 출가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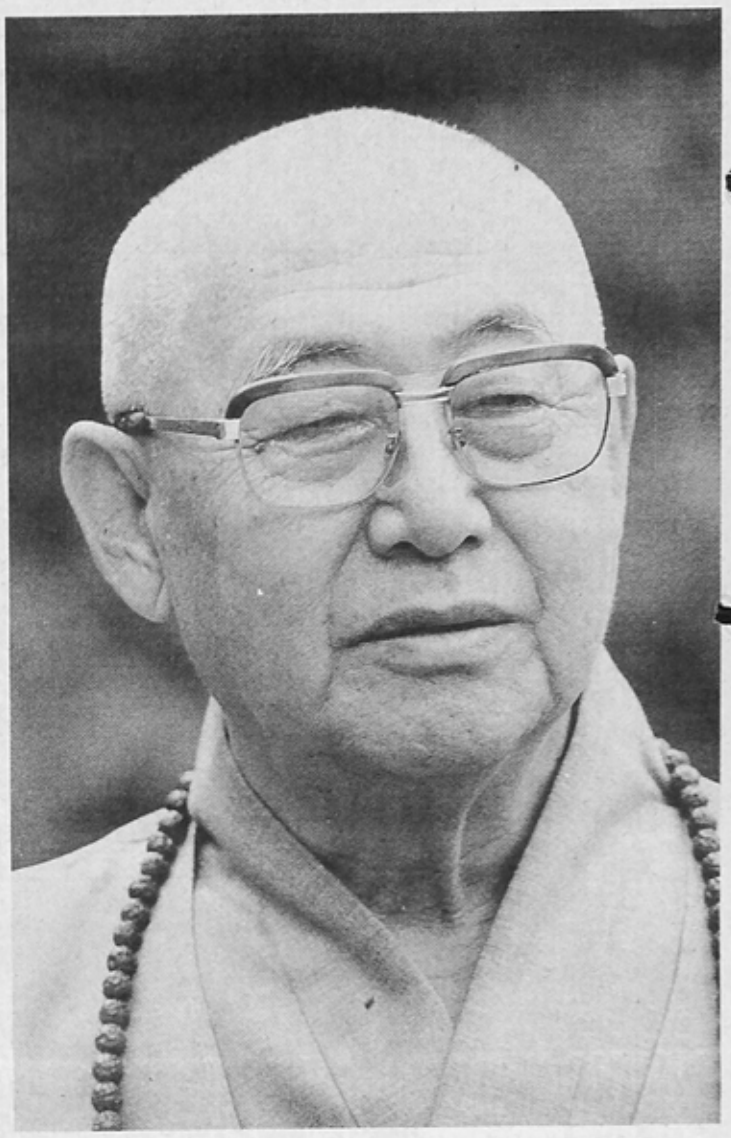
수행자가 애욕·세속의 그물에 얽힌다면 그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꼴이요 도 닦는 이가 세속의 연정 따위를 마음에 품는다면 그것은 고슴도치가 쥐구멍을 찾아든 격이다.(들어가기는 쉬워도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뜻)

비록 재능과 슬기 있어도 속가에 사는 이, 제불께서 그들을 슬피 여기시고 설사 도를 닦지 않더라도 산사에서 사는 이, 뭇 성현이 그들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龍眼

高嶽巖巒 智人所居 碧松深谷 行者所攄
(고악이암은 지인소거요 벽송심곡은 행자소서니라)
飢飡木果 慰其飢腸 渴飮流水 息其渴情
(기손목과하여 위기기장하고 갈음유수하여 식기갈정이니라)
爽甘愛養 此身 定壞
(끽감애양하여도 차신은 정괴요)

지상 법석

"믿음은 선근·공덕 기르는 근원



덕 암 스님

<태고종 전 종정>

종교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신심이 그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심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근을 길러낸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믿음은 온갖 선근을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 곳 없는 나그네와 같아서 일생을 방황하며 삽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주의주장과 주견이 확실하여 어떠한 난관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심에 의하여 더욱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불성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교법에 의하여 번뇌와 망상을 없애버리면 우리도 부처님같은 깨달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한편, 나에게도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을 불안, 혼란, 방종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인간성 부재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무엇에 쫓기듯 방황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금전만능에 눌리고 기계문명에 밀려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교법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무명과 탐욕 속에서 고뇌하고, 고통스러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고, 이해하기는 하고 믿지 않는다면 삿된 소견만 더욱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잘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근본원인인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실천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 아닌 다른 절대자의 능력을 믿으려 하고 권력이나 금력만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것을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될 것을 믿는 데에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따릅니다. 권력과 금력과 기계와 과학의 힘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권력도 돈도 영원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허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진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진리는 역시 불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자가 되고 부처님의 교법을 믿는 것도 불교의 진리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가 닦고 행하여야 할 덕목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계행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계행은 믿음을 토대로 하여 복을 짓고 선근을 기르는 데 수행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행 가운데에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할 계행이라 할 것 같으면 오계와 십선계를 들 수 있습니다.

얕은마음 · 깊은마음

오계는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불교인이면 누구나 지켜야할 계행입니다. 즉 함부로 살생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삿된 음행을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소위 사부중이라 하여 출가수행자인 비구와 비구니 재가불자인 우바새우바이 등이 함께 지켜야하는 계행입니다.

이에 대하여 화엄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 1계인 불살생계를 범하면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고, 제 2계인 불투도계를 범하면 복덕의 종자를 끊는 것이고, 제 3계인 불사음계를 범하면 청정의 종자를 끊는 것이고, 제 4계인 불망어계를 범하면 진실의 종자를 끊는 것이고, 제 5계인 불음주계를 범하면 지혜의 종자를 끊는 일이 되므로 내면의 정신을 길러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선계는 첫째 불살생, 둘째 불투도,

담 화 문

—— 공명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전종도에게 드리는 글 ——

전 종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종단은 정법구현을 위한 종단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종도와 국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회의에 대해 종도와 국민들은 한국불교가 자기위상을 확립하는 전무후무한 기회라고 평가해 왔고 그동안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도들의 성원속에 추진해왔던 종단의 개혁불사가 이제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현재는 개혁의 맥을 계속 이어나갈 새로운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개혁회의가 출범당시 종도들에게 약속했던 일정속에 개혁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 전종도들의 여망속에 개정한 종헌 종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8·15해방이후 정화불사와 함께 최대로 진행하여온 개혁불사를 계승하여 나가는 책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불사입니다.

또한 불교가 이 사회와 민족을 계도해나가기 위한 영겁기단을 쌓아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소수의 종도들이 전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흑색 유인물을 살포하여 공명선거를 저해 하는 반승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각종 투서와 흑색유인물이 얼마나 세인들의 조소를 자아내고 승가위상을 실추시켜 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도들에게 승가에 대한 깊은 좌절과 실망을 안겨왔던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습과 악폐가 근절되지 못하고 또 다시 재연되고 있음에 깊은 충격을 금할길 없습니다.

진정 출가라 함은 세속의 명리와 공명을 다 버리고 우주의 철리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미망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한생각 돌이키지 못한다면 세속의 중생들과 다를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스스로의 허물을 탓할지언정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속임말로 싸움을 시키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서로를 존경함으로써 승가의 화합을 이루라는 고구정녕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종단은 이러한 악습과 악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더이상 개혁에 대한 희망도 종단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청정한 분이 종단을 이끌어도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악습과 악폐가 난무하던 과거로 돌아가 끝내는 세인들의 조소속에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인은 새롭게 태어나는 종단이 되기 위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어 종단개혁의 완성과 승가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가의 화합을 해치고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지극히 소수의 종도들에게 고합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비방하여 공명 선거를 흐리는 흑색 유인물을 살포하거나 기타 반승가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러한 본인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종헌을 위시한 승려법, 선관위법 등 승려의 품위유지에 관한 제반 법률로써 엄중히 다스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종단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이번 선거가 개혁의 대의속에 공명하게 진행되어 화합된 면모로 다시 태어나는 승가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불기 2538년 1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탄성 합장

지상 법석

계행 청정해야 저언덕에 도달"

셋째 불사음, 넷째 불망어, 다섯째 불양설, 여섯째 불악구, 일곱째 불기어, 여덟째 불탐욕, 아홉째 불진에, 열째 불우치입니다.

이 십선계를 몸으로써 행하고 입으로써 행하고 마음으로써 행하는, 신 구의 삼업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한 계행입니다. 또 이 십선계는 대승계의 기본인 동시에 재가계의 청규로서, 불교의 기본적인 생활윤리입니다.

미륵하생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3업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입과 마음으로 나쁜 행 짓지 아니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이란 것은 삐뚤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을 이름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혹여 마음에 무슨 깊고 얕은 마음이 있느냐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은 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얕게도 쓸 수 있고 또한 깊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것을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될 것을 믿는 데에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따릅니다. 권력과 금력과 기계와 과학의 힘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권력도 돈도 영원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허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진리 밖에 없습니다.

지로 마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의 3가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한 마음을 깊게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사납고 폭악한 마음에서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결여된 종교인은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남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는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범하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비롭지 못하면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껏해야 지식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잔재주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은 인간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행복과 불행과 고통에 대한 해결은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아니고

어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라고도 하며 불보살의 어머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스승과 어머니는 자식의 행복을 원하여 항상 수고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항상 알아내어 괴로움이 되는 원인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제거해 줍니다. 또한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몸을 팔아서라도 얻어주려고 합니다. 불보살께서 우리 중생을 제도하는데는 지혜의 방편을 쓰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일생 모두가 그렇고 팔만사천의 법문까지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편뒤에 있는 궁극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방편에만 매달려 허송세월을 하는 이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격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음과 수행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보살과 부처님은 무수한 방편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행을 이룰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기

좋은약 있어도 복용 안하면 병 못고쳐

오계 범하면 자비·지혜 종자 죽이는 것

하고 몸으로써 또한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땅히 이 몸·입·마음의 나쁜 업 여의는 자는 생사고해를 뛰어넘어 저 언덕에 이르리라. 삼업을 닦아 십선업을 실천하므로써 비로소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매우 함축성있는 말씀입니다. 또 3가지 선업 중에서도 구업을 더욱 중히 여겨 네 항목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에 대한 주의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여하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돈독한가 그렇지 않은 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기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는 대충 세가지

마음이 얕은 사람은 참다운 진리를 보기가 어렵고 또 그 진리를 잘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신앙도 종교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스승 반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물줄기라도 쉼없이 흐르면 끝내 바위를 뚫는다. 무의미하게 한 평생을 보낸다면 후회하지 않겠는가. 의사는 병을 바로 알아서 좋은 약을 쓰지만 그 약을 복용하고 안하고는 완전히 병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을지라도 환자가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깊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의 3가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한 마음을 깊게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사납고 폭악한 마음에서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결여된 종교인은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남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는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범하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비롭지 못하면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껏해야 지식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잔재주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은 인간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행복과 불행과 고통에 대한 해결은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아니고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명과 번뇌의 세계에서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속제(俗諦)를 익히 알면서도 다시 절대진리인 진제(眞諦)까지 조명하고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진리를 이름하여 반야라 하기도 합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온 우주를 밝게 비쳐주는 가장 큰 광명입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는 뭇 생명을 살게하고 자라게 하는 열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혜 즉 반야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반야는 일체무명과 미망을 밝게 비추어 밝히고 모든 중생을 살게하고, 자라게하는, 즉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의 힘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또는 반야를 일컬

때문에 지혜가 모자라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는 마음을 내야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하며, 또 믿고 이해한 바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야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해행 증의 과정을 원만히 이루기 위해 불교인들은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도 신행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행도 신행입니다.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이타행을 하고 계행을 지켜가면 모든 강물이 흘러서 결국은 바다를 이루듯, 그 모든 선근과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깨달음과 수행이 원만하게 이룩되는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⑤

초전도의 수수께끼

김 성 규

마호메트의 관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신비감과 수수께끼를 남겨 놓은 적이 있었다. 초전도체로서 그릇을 만들어 그 속에 보통 자석을 넣어둔다. 그러면 그릇은 완전반자성이므로 보통 자석을 튕겨낸다. 즉 N극에는 N이, S극에는 S가 서로 마주보게 된다. 이 때문에 그릇에 들어있는 자석은 귀신이 붙어있는 것처럼 혼자서 공중에 떠 있게 된다.

지금까지 완강히 액체가 되기를 거부해온 헬륨가스가 어지럽게 파이프 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가스가 반복 냉각되어 움직임을 멈출때 인류가 실험을 기울여 연구해온 극저온의 세계, -269℃가 되면 액체 헬륨이 깊숙한 용기 바닥에 고이게 된다. 온네스는 인과의 법칙을 초월한 또 하나의 세계, 극저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초전도 현상을 실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극저온과 참선 삼매는 같은 경지

1895년에는 독일의 린데, 영국의 햄프슨이 공기를 액화하는데 성공하여 -180℃를 얻었다. 이 온도는 지구상의 남극이나 북극의 혹한기에도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추운 온도이다. 기체의 온도를 내려 액화하는데는 먼저 기체를 압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우리가 참선을 하여 입과 몸과 정신등 모든 것을 봉하고 내면의 세계로 몰입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온도를 내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질의 성질을 규명하려 할 때 온도를 낮추는 일은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높은 온도에서는 물질 속의 열운동이 활발하여 미세한 현상은 격자진동의 광란 속에 파묻혀 버린다. 그러나 온도를 내림에 따라 열운동이 그 활발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상태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미세한 운동이 물질의 성질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온네스가 1911년에 처음으로 끕에서 발견한 잔류저항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저온에서 관찰되었다. 또 온도가 저온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예상도 못했던 현상이 나타난다. 금속의 전기저항이 완전히 제로가 된다. 액화된 헬륨은 그냥 보기에는 무색투명한 평범한 액체이다. 그러나 물과 비교하면 1,000배나 증발하기 쉽다. 이러한 액체 헬륨에 온도를 조금 더 내려 2K가 되면 지금까지 맹렬히 요동하던 것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 상태의 헬륨을 헬륨II 라고 하며 기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초인이 벽을 뚫고 밖으로 나오듯이 아무런 틈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 넣어두어도 밖으로 슬슬 기어나온다. 용기에 넣어두면 뱀이 기어나오듯이 슬슬 용기 밖으로 액체 헬륨이 기어나온다. 헬륨II속에 빈컵을 밀어넣으면 컵의 높이가 액면보다 훨씬 높은데도 슬슬 기어들어와 헬륨 액체가 컵에 고인다. 또 그릇에 넣고 돌리면, 점성이 제로이므로 헬륨은 그대로 있고 그릇만 빙빙 돌아간다.

이와같이 극저온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본질은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추구할려고 할 때 참선을 하여 내면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로지 하나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하는 물음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 놓고 밑도 끝도 없이 자신에게로 빠져드는 것이다.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다고 참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선은 본질적인 물음에 자신의 전부를 침투시키는 폭발적인 작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절실한 문제라야 24시간 풀어야할 의심덩어리(화두)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내면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선은 극저온의 세계처럼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며,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안에 갇히어 적정에 잠기지도 않아야 하며,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얽매여 밖으로 향해 어지러워지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다.

나와 남의 구별이 있는 분별심이 남아 있으면 참선을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욕심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편안만을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화내는 마음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 말로써 벗어나지 말고 행위로서 벗어나라.

조그마한 불씨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을 끈다고 부채질을 한다면 불씨는 살아나 자신과 주위를 모두 태워버리듯이 마음속에 집착에 의한 욕심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참선을 한다고 다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조그마한 불씨처럼 자신의 내부에 탐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고 갈 것이다.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참선을 한다는 것은 극저온의 상태가 되는 것이며 액체 헬륨II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제10회 '不二賞' 要綱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研究·實踐·奬學·出家勉學 등 4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 그들의 보다 알찬 發展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本賞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 시상분야
연구분야
大學院 碩士課程修了 이상의 學歷者이며 大學에서 時間講師 이상 助敎授 이하의 職에 있는 者로서, 최근 2년 동안의 업적 중 佛敎學(佛敎를 중심으로 하는 歷史, 哲學, 文學, 藝術, 比較思想, 其他) 관계의 탁월한 硏究成果를 올린 者.

장학분야
대학원에서 佛敎學 관계의 학문을 연구중인 학생으로서 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

실천분야
佛敎에 入門하여 5년이 경과한 만 40세 미만의 불자로서 그 信行과 布敎가 他의 模範이 되는 者.

출가면학분야
修行經歷 5년 이상 7년 이하인 스님으로서 布敎를 위한 學業에 힘쓰고 있는 스님

■ 시상규모 각 분야별 1명, 300만원

■ 후보자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 카드(본회 소정양식 : 별첨)
· 자필 이력서(사진 첨부)
· 학력 증명서
· 경력 증명서
· 업적을 증명하는 연구물 또는 활동내역서, 성적 증명서
· 구족계 수계 증명서
· 추천서 3통(총장, 대학원장, 기타 기관 및 단체의 장)

■ 접수마감 94년 12월 10일까지

■ 심 사 不二賞 심사위원회

■ 수상자 발표 불교계 언론매체 및 불교연구지에 발표

■ 접수처 및 문의 不二賞 심사위원회

不二會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02)575-6167~8 FAX:575-6169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7대성지 순례)
인도 네팔 11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13일, 1월 27일 동참금 : 165만원
● 일 정 : 서울-델리(1박)-럭나우-발람푸르(1박)-바라나시(1박)-보드가야(1박)-라지기르, 나란다-파트나(1박)-바이살리, 쿠시나가르(1박)-룸비니(1박)-카트만두(1박)-심가쿱 경유-서울
● 특 전 : 전문요리사 동행 **한국 음식 제공**, 불교성지순례 **전문가이드**.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캔디 불치사)
스리랑카 6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6일, 1월 20일 동참금 : 108만원
● 일 정 : 서울-콜롬보(1박)-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1박)-폴론나루와, 시기리야-하바라나(1박)-덤불라, 아루비하르-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태국 8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27일, 2월 10일 동참금 : 14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 불광사, 화련
대만 5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13일, 2월 3일 동참금 : 68만원
● 일 정 : 서울-타이페이(1박)-고웅(1박)-화련(1박)-타이페이(1박)-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 5일
● 출 발 : 12월 11일, 1월 22일, 2월 12일 동참금 : 85만원
● 일 정 : 서울-덴파사(2박)-족자카르타(1박)-자카르타(기내박)-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헤초여행사
국외 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대표전화 (02)544-1533

■ 여행조건
· 특급 또는 1급 호텔(2인 1실 기준)
· 전 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 최소 출발 인원 : 10명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5

스님! 저를 아내로 삼지 않을 작정이면 이칼로 · · ·

우녀의 파도소리

인담과 우녀는 심심풀이도 없을 정도의 심심하기 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녀는 부엌일을 맡았고 인담은 양식과 땔감등속을 맡는 여느 가시버시 노릇과 다를 바 없었다.

워낙 혼자 사는 앞에 오래 된 해묵은 된장처럼 익숙한 인담인지라 그는 공부를 하는지 그저 시간을 죽여가고 있는지 모르도록 지극히 완만한 일상 생활일 뿐이었다.

우녀가 그런 인담에게 한마디 걸었다. 하루 이틀 살아가면서 스님에 대한 위엄을 체험하기보다는 친숙해지는 과정이었으므로 그런 수작이 어거지일 까닭이 없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당돌하였다. 당돌할 뿐 아니라 그녀를 구해준 스님에 대한 최소한의 경의(敬意)도 전혀 배제된 상태의 막말이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인담은 그런 것에 걸려드는 거미줄 나비가 아니었다.

"저 파도더러 물어보아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사람과 파도는 다르지 않아요?"

인담이 들리지 않는 한숨과 함께 바로 대꾸가 잇대어 나왔다.

"하기야 내가 파도보다는 못한 점이 다른 것이지. 그러나 나와 파도가 본디 다른 것이 아니요."

"아쭈! 스님이 송도(松都) 국사봉(國師峰) 칠보(七寶)도사 시늉을 하는군요"

"허허 내가 시늉이라면 어찌 그 국사봉 도사 시늉 뿐이리요. 삼천대천세계의 갖가지를 다 시늉하고 있는 중이라오."

도리어 스님은 깎듯이 경어를 쓰고 우녀는 막말을 트고 있었다.

인담은 바위등성이로 솜차게 올라가서 그곳 소나무 숲의 고목이나 가지들을 쳐서 한 짐씩 만들어 바위 아래로 구을리는 일을 한나절이나 하였다.

사시(巳時)가 가까워지자 불단(佛壇)에 마지(摩旨)을 올릴 때에 맞추려고 낮과 잘 들지 않는 톱 따위를 들고 갈대지붕의 암자로 돌아왔다.

"종은 왜 칩니까? 철위산의 어둠 다 몰아내고 지옥 아귀 축생의 괴로움 다 여의게 하고 칼산의 지옥을 부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식칼도 지옥의 칼 아닌가요? 이 칼로 이내 불붙은 가슴을 찔러 주시오." 그녀의 눈빛이 세찼다. 인담의 눈빛이 숨을 죽일 만큼.

하지만 무욕도 암자에서는 마지가 밥이 아니라 새벽에 뜬 첫 샘물이었다. 그것으로 고대 이래의 차 공양대로 삼고 있었다.

내 지금 깨끗한 물로
감로의 차를 달여
삼보 앞에 바치오니
원컨대 어여삐 받아주소서
(我今淸淨水 變爲甘露茶
奉獻三寶前 願垂哀納受)

그누가 이 무욕도에 물이 없다 하였는가. 물론 그 물을 알지 못한데서 오는 오랜 전설이었을 터이고 또한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어떤 처사가 있었을지 모른다.

이 무욕도의 갈대지붕 암자는 인담이 창건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암자가 있던 터에 새로 집을 지은 것이었다.

그것을 지은 뒤 첫날밤에 인담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조각달 꿈을 꾸었다. 그래서 저 혼자는 암자 이름을 반월암(半月庵)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나 곧 그 이름마저 내버리고 만것이다.

이렇게 인담의 고적한 무욕도 수행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흠, 흠"

인담이 코를 벌름거려 보았다. 이제까지 맡을 수 없었던 비린 내가 났다.

서너사람이 들어가 서 있기에도 비좁은 법당에는 인담이 나무로 새겨 만든 작은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그 불상 앞에 놓인 그릇속에는 물 대신 무럭무럭 김이 나는 국물이 차 있었다.

뜻밖이라는 듯이 눈이 커진 인담으로서는 크게 놀라기라도 해야 안성맞춤인데 그의 무심(無心)은 아직 그대로였다.

"이런 꽃 향기도 있나보군"이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 우녀가 짓궂은 듯이 노란 웃음을 (艷艶)해지고 있었다. 얼굴의 빛깔도 무척이나 달빛을 머금어 맑아져 있었다.

밥상을 물린 인담은 국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바닷가로 내려가 그 그릇 안의 국물을 다 쏟아 버렸다.

그를 뒤따라 온 우녀가 그 광경을 야릇하게 보고 있었다.

"저기를 보아요"

라고 인담이 말하였다. 그녀가 방금 국물을 쏟은 바닷물을 보았더니 국물 속의 게가 살아나서 물 속으로 잠겨 들어갔고 굴조차도 바닷가에 까발려진 굴껍질 속으로 들어가자 그 껍질이 꾹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때 우녀가 눈물이 그렁해지는 눈으로 새삼스러이 인담을 우러러 보았다.

"스님의 수행을 몰라 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오. 내가 높은 도에 이르렀으면 그 국물을 맛있게 다 먹고 난 뒤 내 오줌과 똥으로 나온 그것들이 살아서 제 고향으로 살아 돌아갈 터인데 · · ·나는 아직 갈 길이 먼 초발심자(初發心者)일 따름이라 저놈들을 가까스로 살려 준 것이오."

"아아."

처녀의 출무성한 몸에서 실로 어여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그녀로서도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다시 그들의 일상생활은 이어져갔다. 새벽과 오전의 선정(禪定)과 오후의 운력(運力) 그리고 초저녁의 자유가 그들의 하루인 것이다.

아직 우녀는 인담이 하는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다. 특히 선정의 시간에는 그녀 혼자 밖으로 나가 섬을 한 바퀴 돌거나 바다에 대고 돌멩이를 멀리까지 던지거나 하였다. 그것도 아니면 수평선과 닿은 먼 하늘 속을 날으는 새를 시력(視力)이 좋은 눈으로 알아보며 "이리 와" "이리 와"하고 불러대기도 하였다.

하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밥 짓는 일과 부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따위는 정상이었다.

며칠 뒤 인담이 그녀와 좀 떨어진 잠자리에서 불렀다.

"우행자(雨行者)! 내일 나는 육지에 건너갈 일이 있는데 이곳에서 혼자 지낼 수 있겠소?"

그로서는 이 남자를 때를 쓰다싶이 데려올 때의 하대(下待)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거니와 지금은 그녀에 대한 참된 마음의 존대(尊待)를 하는 것이다.

그녀 쪽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저 등을 돌려버리는 몽작만이 어둠속에서 집작되었다.

"나 다녀오리다. 그때까지 공부 삼아 외롭더라도 외롭고 무섭더라도 잘 견디고 나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있음과 다를 바 없이 될 것이요."

그때에야 한마디가 촉촉한 목소리로 건너왔다.

"언제 돌아오셔요?"

"달포 쯤이 될까."

"어머나 어머나 너무 길어요."

"달이 사위었다가 다시 둥글어지는 동안인데 · · ·"

"꼭 가셔야 되어요?"

"다녀와야 합니다."

"양식 때문이라면 제가 내일부터 하루 한끼만 먹겠어요."

"아닙니다."

"그럼!"

하고 그녀가 다시 등을 돌려 인담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럼 지금 저를 품어주세요. 저를 아내로 삼아 주세요."

인담이 입을 다물었다가 열어야 하였다.

"· · ·언젠가 그럴 날이 있을 것이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서로 약조한 대로 무사(無事)하게 지냅시다."

파도소리가 커졌다. 그 파도소리에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밤은 능히 깊은 아픔과 기쁨의 절정에서 울부짖어 파도소리를 거절해야 하였다.

하지만 인담에게는 나무 끄트머리 우듬지처럼 공중의 어둠속에서 어떤 유혹에도 견디는 고독으로 차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임춘의 시 한 줄이 떠올랐다.

오디 익는 보리누를
녹음 속 꾀꼬리 노래
(田家蠶熟麥將稠
綠樹陰陰聞好鳥)

달포라고 말했지만 내년 여름에나 돌아올 사정을 앞당길 수 없는 형편에 어울리도록 오디가 익은 것과 보리가 익는 일을 합치시킨 시인의 재능이 놀라웠던 것이다.

새벽에 종송(鐘頌)을 할 시각인데 우녀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담이 그녀의 이불자락을 조심스레 건드렸다.

그때 우녀의 손에 식칼이 들려져 있었다.

"종은 왜 칩니까? 철위산(鐵圍山)의 어둠 다 몰아내고 지옥 아귀 축생의 괴로움 다 여의게 하고 칼산의 지옥을 부수어 버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식칼도 지옥의 칼 아닌가요? 나를 아내로 삼지 않을 작정이면 이 칼로 이내 불붙은 가슴을 찔러 주시오. 스님!"

흰한 먼동 빛에 스며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미 여며야 할 저고리의 깃도 열려 부푼 가슴팍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세찼다. 인담의 눈빛이 숨을 죽일 만큼.

"우행자!"

"· · ·"

"우행자! 우리 제발 한번 멋있게 깨쳐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지옥을 다 때려부수는 일을 해보자!"

"싫어! 싫어!"

하고 우녀가 발작을 일으켰다.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인담은 가까스로 식칼을 빼앗았다. 실로 엄청난 여자의 힘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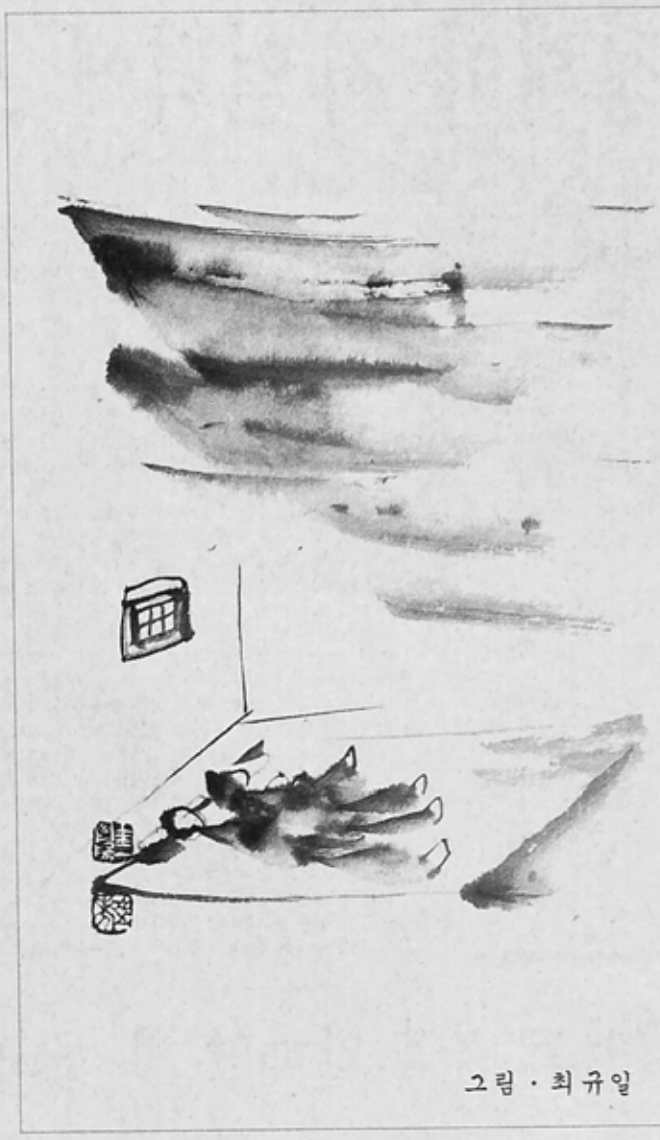


그림 · 최규일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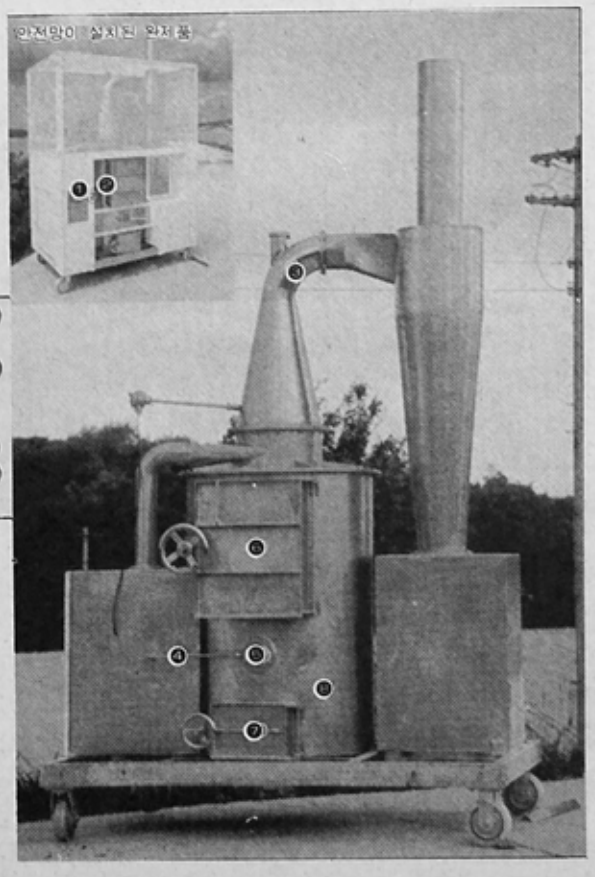
폐 비닐 ·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매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 ·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불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 - 8644, 의장특허출원 94 - 8470, 8471, 8472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 · 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 - 1
전화 : (0344) 64 - 7236, 62 - 3488
팩스 : (0344) 62 - 7012

선재동자 미키마우스에 도전

불교팬시용품 4백여종···유아포교사로도 각광

소재개발·디자인·색상 고급화 추세

이은자 기자



◇ 최근 선재동자를 비롯 50여품목 4백여종의 불교팬시용품이 선보여 불자와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부처님의 꼬마제자 선재동자가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벗으로 새겨질 날이 머지 않았다. 삼보로서 존경해야할 분이면서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스님이 어린동자로 화현하여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걸망메고 목탁을 든 장난기어린 친숙한 모습의 선재동자 모델은 목걸이, 집게, 메모판, 공부중 안내표, 벽걸이등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돼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좋아하는 인기상품으로 외국관광객들에게까지 인기가 높다. 기껏해야 초와 향, 합장주가 신행상품의 전부였던 불교계에 근래들어 다양한 용품이 개발되면서 선재동자를 비롯 50여품목 4백여종의 불교팬시용품이 주목을 끌고 있다.

불교팬시용품은 80년대말 도심사찰과 포교당을 중심으로 어린이법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출석부, 스티커, 법문노트등 법회용품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작됐다.

연꽃연필, 부처님연필, 법구경연필, 코끼리볼펜, 필통, 학습노트, 일기장, 지우개, 샤프펜슬 등 문구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불교팬시용품은 . 단순히 예쁘고 보기좋은 물건을 만든것이 아니라 불교의 이미지와 교리, 법문을 담아 간접적인 불교포교의 역할을 함께하는 성물의 성격까지도 담아내 어린이 포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어린이 팬시용품의 주요 소재는 연꽃, 꼬마동자, 코끼리, 목탁, 염주들로 불자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어린이에게까지 친근한 느낌을 준다.

문구류를 기본으로 어린이들이 불교와 쉽게 친근해 질 수있고 간접적으로 불교를 생활속에서 느낄수 있게하는 아기지장열쇠고리, 목탁열쇠고리, 꾸러기 3동자, 동자저금통, 도시락, 수저통, 물통, 연꽃뱃지, 부처님목걸이, 연습용교마목탁, 동전지갑, 양말, 반야심경이 적힌 손수건 등 다양한 상품들도 현재 선보이고 있다.

서울 하계동 박지수어린이(용동국교 4)는 "절에서 상품으로 받은 연꽃연필로 글씨를쓰고, 부처님이 그려져있는 도시락에 점심을 담아오는 것을 친구들이 신기하고 부럽게 생각해요."라면서 "반야심경이 쓰여있는 책받침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도 있구요, 빨강, 노랑, 파랑색의 합장주를 팔찌처럼 차고 다니는 여자애들도 많아요."라고 말했다.

어린이불교용품에서 출발한 불교팬시용품이 이제는 청소년과 성인불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불자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사이에서는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의 선물로써 불교적 이미지를 지닌 물건을 선물로 주는것이 유행되고 있으며, 불자들 가운데 합장주와 목걸이, 반지등 한두점의 불교장신구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조계사 근처 대부분의 불교용품점에는 이같은 불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연꽃오색주머니, 반야심경주머니, 향꽃이, 벽걸이, 관화, 다포, 패션합장주, 만자를 새긴 반지, 목걸이, 브로치, 반야심경으로 디자인된 넥타이 등 5천원에서부터 10만원 미만의 상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포교의 일선에서 느꼈던 체험을 바탕으로 불교팬시용품 개발과 제작의 선구자로서 꾸준히 활동해오면서 연꽃동자, 아기부처님, 동자저금통 등 자신이 직접 고안한 새로운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는 관음은 대표 강미애씨는 "종교상품은 일반 팬시상품과 달리 그 자체에 신심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신심없이 그리는 부처님은 아무런 감흥도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라고 말했다.

작은 물건에 모양과 덥시, 빛깔의 조화를 통해 장식적인 미와 종교적 신앙의 아름다움까지를 담아내는 작업이 바로 불교 팬시용품의 제작과정이다. 팬시용품의 제작은 무생물의 조형물을 통해 부처님의 그윽한 법향을 느낄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대불사다.

목탁, 연꽃, 반야심경등을 옮겨놓는 단순한 디자인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불교를 상징할수 있는 독특한 문양과 캐릭터 개발을 통해 소재의 다양화와 사용대상의 확대, 디자인과 색상의 현대화등이 앞으로 불교팬시용품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매스컴과 각종 홍보물의 영향으로 우리불자들의 눈맵시 또한 높아졌다. 높아진 불자들의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개발로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는 모든 대중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할수 있는 생활팬시용품의 사용이 이루어질때 불교팬시용품의 대중화가 앞당겨 질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종교인이 오래 산다"

평균 80세···정치·연예인·교수순, 언론인 단명

김종인교수 분석

종교인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인교수(원광대 보건행정학과)는 최근 「직업별 사망연령의 조사분석을 통한 장수모형 연구」논문을 통해 1963년부터 92년까지 30여년간 신문 부음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저명인사 1천2백83명을 직업별로 나눠 사망연령을 분석한 결과 종교인이 가장 오래 살고 저작자의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사회저명인사의 평균사망 연령은 69살이며 종교인(80살) 정치가(72살) 연예인(71살) 대학교수(69살) 고급공무원(69살)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업가(68살) 법조인(68살) 예술가(66살) 체육인(65살) 언론인(64살) 저작자(62살)등은 평균사망 연령치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80살로 가장 장수한 종교인은 가장 단명한 저작자의 평균 62살보다 18년을 더 오래 산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기간 중 가장 장수한 인물은 종교인인 김대인 전 조계종 대종사로 96살 이었으며 이공주 전 원불교 수도원장이 95살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한편 종교인 가운데 가장 단명한 이는 61살에 위암으로 사망한 황문성 전 천주교 대전교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결혼 입신 이혼 법거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이며, 언론인·저작자들은 흡연·폭음등 불규칙적인 생활과 정신적인 억압감 때문에 단명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불교문화센타 9기 강좌 개설

꽃꽂이·노래부르기 등 과목다양

대한불교진흥원(이상장 서돈각) 불교문화센타 9기 강좌가 오는 12월 1일부터 열린다.

불교문화센터에서는 일반문화센타에서 접하기 어려운 유마경과 아미타경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혜담스님과 동봉스님에 의해 강의하며 한국선명상문화센터 원장 혜원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생활선 등 13개 강좌가 새로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우리가락 배우기, 생활역학 강좌, 노래부르기 교실, 불교전통 꽃꽂이, 요가, 다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 교양, 취미, 예술강좌 및 어린이·유아강좌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된다.

문의 (02)703-0108

정신대 위령탑 건립

29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정신대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묘주)는 오는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정신대 위령탑 건립 기공식을 거행한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의 감사인 권현경씨의 기증으로 안양시 간양동 산44-1번지에 6백여평의 공간을 확보한 정신대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는 위령탑을 세우고 산교육장을 만들 계획이다.

정신대위령탑은 95년 8월15일 준공예정이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대구(對句)의 장○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승에서도 기뻐한다

이 향 원



(주) 혜 인 · 동아디젤상사



선박 엔진의 모든 것
동아 디젤 상사에 맡겨 주십시오.

최고의 엔진 · 최고의 성능,
(주)해인
—동아 디젤 상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동아 디젤 상사의 선박 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엔진입니다.
—판매에서 AS까지 섬기는 자세로 고객을 대합니다.
—엔진의 성능은 곧 선박의 선능입니다.
—안전 운항 · 쾌적 운항, 동아 디젤이 돕겠습니다.

(주) 혜 인
동아디젤상사
DONG-A DIESEL CO.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22
TEL:(051)415-1250~1
(051)415-1432
FAX:(051)415-1461

CAT

교황, 불교 잘못 이해하고 있다

"불교는 부정적 세계관의 종교" 편협한 입장보여

「희망의 문턱을 넘어」를 읽고



가톨릭 교계의 권위를 상징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수상집이 최근에 한국말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름하여 「희망의 문턱을 넘어」라는 책 제목의 상징적 비유를 보면 그의 끊임없는 현실참여와 낙천적 태도가 엿보인다. 이 수상집은 그가 교황 즉위 15년을 맞이하는 1993년 10월 이탈리아 텔레비전 기자의 서면질의에 응답한 친필수고를 편집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모두 서른 다섯 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교황의 답변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열 네 번째 항목으로 붓다를 거론한다는 점이다. 가톨릭 교황이 종교간의 대화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그의 현실 참여적 발언에 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이번의 수상집을 통하여 우리는 가톨릭 교황으로서 타종교에 대한 그의 두렷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하여 수상집의 독자로 하여금 교황의 태도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첫째, 교황은 가톨릭 교계의 권위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존립 근거를 문화의 다양성에서 찾지 않는다. "모든 민족들은 단 하나의 기원을 가졌고, 또한 단 하나의 최후 목적이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하는 인용이 보여 주듯이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종교 즉 하느님의 종교로 수렴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특별기고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 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양식뿐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짓 없는 존경심으로 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선포해야한다." 이는 교황 스스로 타종교를 기독교의 테두리 속에서만 인정하겠다는 배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교황의 불교관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에 대한 태도는 기독교 중심적인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타종교 가운데에도 교황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다는 불교의 주제에 대한 교황 성하의 권위 있는 견해를 들어보자.

교황에 따르면 불교는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종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교리가 상반된다고 비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불교는 유신적 체계에서 보면 여전히 무신적인 체계요, 붓다가 경험한 '깨달음'은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악의 근원인 세상으로부터 초탈 내지 무관심해짐으로써 불교의 정신적 구도과정의 정점(頂点)인 열반에 이른다고 이해하고 있다.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 긍정적, 불교는 부정적 따라서 불교는 무신적 체계로서 하느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로 파악된다.

혹시 기독교의 신비적 전통을 들어 불교와 유사성을 들먹이는 접근에 대해서도 교황의 편협한 배타성은 한 치의 여유를 두지 않는다. 즉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하느님의 계시에서 온 것이지 결코 불교식 금욕과 부정적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요컨대 가톨릭 교황의 타종교관 내지 불교관은 기독교 중심적 선교의 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서 대화와 관용의 태도를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아직도 종교간의 만남이 의례적 수인사에 그치고 마는 현실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가늠하는 호재가 이번의 교황 수상집에서 발견된다. 그 원인은 기독교의 배타주의를 여전히 성서의 역사성에다 정초하려는 헛된 노력에 있다.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만연하는 현대에 아직도 가톨릭은 하느님의 유일-절대-진리성에 기초한 선교에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심 재 룡

〈서울대교수 · 철학〉

우리 불교역사 알기 쉽게 풀이

불교사 3권 동시 출간



김 현 준씨



정 의 행씨



혜봉 스님

이야기 · · · 구도열정 · 정법수호 과정서 파악

인물로 · · · 민중복지 · 역사발전 기여도 분석

불교사 · · · 주요 장면 100편 일목요연 정리

한국불교사를 다룬 세 권의 책이 최근 동시에 출간돼 우리 불교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야기 한국불교사」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 「불교사 100장면」이 그것들로, 각기 독특한 불교사관과 서술방법으로 한국불교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야기 한국불교사」(김현준 지음, 효림)는 제목에서 드러내고 있듯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등의 문헌에서 108개의 불교관계 기사를 인용해 '이야기식'의 서술방법을 채택, 불교사에 문외한인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이 책의 독특한 역사관이 주목을 끈다. 저자는 구정스님과 한암스님의 예화를 빌어 자신의 불교사관을 '꺼지지 않는 구도열정과 목숨을 건 정법수호'로 압축하고 있다.

이같은 불교사관은 왜곡된 불교역사를 바로잡자는 뜻과 함께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불교를 바라보자는 바램의 표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 한국불교사」는 '왜 고려불교가 기복의 불교이고 의례불교인지, 또 조선의 불교는 어떤 이유에서 무기력한 불교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김현준씨는 「고려사」의 왜곡된 역사기술, 조선시대의 억불정책, 일제시대의 한국불교 주체성 말살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불교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려 · 조선의 불교가 생명을 잃은 불교도, 허무한 불교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야기 한국불교사」는 불교인들에게 선인들의 구도열정과 정법수호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불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 인용문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음과, 색인표를 달지 않아 불교사를 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비껴가고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정의행씨의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밀알)는 불교 또는 불교인이 '민중의 복리와 역사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라는 다분히 민중사관에 입각한 기준으로 불교사를 바라본다.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불교인물을 통해 불교사를 구성한 특징을 보이는 이 책은 "외형적인 불사를 크게 일으킨 사람이라면 무조건 '고승'으로 추켜세우는 것은 잘못된 인물평가이며, 설사 민중의 복리를 위해 몸바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배권력의 눈에 거슬렸다면 무조건 '요승'으로 깍아내리는 것도 역시 잘못된 인물평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즉 우리 불교사를 '거꾸로 읽어 바로잡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신라시대의 고승으로 추앙받아온 자장스님이 '친왕실 사대주의 모화사상가'로 평가절하되는가 하면, 요승으로 매도되었던 묘청 신돈(편조) 우본스님 등을 '사회의 현실과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위해 적극 나선 분'으로 '복권'시키고 있다.

한편 「불교사 100장면」(혜봉 지음, 가람기획)은 불교사의 주요부분을 100항목으로 나눠 관련사진과 함께 불교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역사로 읽는 불교입문서'로도 읽힌다.

「불교사 100장면」은 위의 두 책과는 달리 석가탄생과 경전의 성립, 불교의 중국 전파, 한역경전의 성립 등을 다뤄 한국불교사 이해를 위한 배경설명에 앞부분을 할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책 뒷부분에는 '불교사 연표'를 실어 독자들의 불교사 이해를 도운 점도 돋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방대한 불교사를 100항목으로 분류한 자의성이 강하다는 점과 너무 축약된 서술이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들 책이 본격적인 한국불교사 연구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불교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불서100선

숫타니파타

부처님 목소리 들리는 인생 지침서



조 용 길 〈동국대교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있는 숫타니파타(sutta-nipata)는 법구경과 같이 늘 곁에 두고 읽는 보배로운 부처님 말씀이다. 팔만사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 어떤 것은 깊고 높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 숫타니파타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늘 읽고 생각하면 알기쉬운 말과 명쾌한 철리로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속삭여주시고 넌지시 깨우쳐 주시고 미소를 머금으시며 그윽히 바라보시는 느낌을 절로 나게끔 한다.

왜 그러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숫타(sutta)는 경(經)이란 말이고 니파타(nipata)는 집성(集成) 즉 '부처님의 첫 말씀'을 모아 엮어놓은 경집(經集)을 말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처님의 온화하고 자상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숫타니파타는 경전이나 성전의 불교 초기성립사상 최초의 것에 속하므로 아주 중요한 경집으로 취급되고 있다. 부처님의 설법체계를 ①운문의 시기 ②산문의 시기 ③경 · 율 · 논 삼장의 성립시기 ④남방 삼장의 시기 ⑤대승경전 성립시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숫타니파타는 산문이 시작된 아쇼카 대왕(BC268~232) 이전의 운문시대보다 더 오래 되었다고 보는 고전중의 고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4장 〈시의 장〉과 5장 〈피안에 이르는 길〉은 더욱더 오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간결 소박한 운문 형식의 초기경전

이 경집은 불교의 가장 초기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둘도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이 그후 제자들에 의해 외우기 쉬운 운문의 형식으로 구전 구송되어 오다가 그것이 범어(산스크리트어)에서 남방의 팔리어로 정착되어 최초의 성전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후의 다른 어떤 원시경전이나 대승경전보다 부처님의 육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 부처님의 진면목을 그대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간결, 소박한 초기불교사상을 잘 알 수 있는 길잡이의 선봉으로써, 불교가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깊이만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지침서로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뱀(蛇)의 장에서는,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이,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는 수행자는 이 세상(이승)과 저 세상(저승)을 다 함께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라고 되어 있고, 과녁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귀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신다.

성자는 어떤 것이 성자이며 이법(理法)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설하시고, 어떤 도덕을 지킬 것이며 정진은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처음 본인이 이숫타니파타를 대하였을 때는 밤새는 줄 모르고 읽었고, 불교방송 개국 후 2개월 동안 이 숫타니파타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방송을 한 바도 있어 매우 친근하고 고마운 길잡이다.

늘 가까이 계신 부처님을 이 숫타니파타를 읽고 생각하므로서 나는 그 분을 모시고 있다.

신영훈 「절로가는 마음」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사찰의 독특한 건축기법과 우리 고유의 조형철학을 살핀 「절로 가는 마음」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청소년 권장도서로 결정됐다. 「절로 가는 마음」은 문화재 전문위원 신영훈씨가 목수의 경험을 통하여 절의 건축물과 탑, 불상을 비롯한 조형물, 불화 단청 조각술 등에 얽힌 배경을 밝힌 우리나라 건축 및 미술사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분 류
1	부처님 땅	이정범 외	불지사	아동
2	무소유	법정	범우사	문학
3	삭발하는 날	현진	해인사출판부	수상
4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	경허 외	홍법원	법어
5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창작과비평사	수상
6	한글 이야기	고영진	동대출판부	권전
7	천하의 율음소리	박희선	불교영상	전기
8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수상
9	홍문화박사의 건강장수	홍문화	한강수	건강
10	불교상식백과	홍사성 외	불교시대사	교리

구입문의:(02)737-0695

끊임 없이 연구 · 개발하고 있습니다.

ENERGY 절약형 각종 공업로 설계 제작 시공 전문업체

세계의 기계공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금강 엔지니어링은 세계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그동안 미국의 선두업체인 ATMOSPHERE FURNACE COMPANY와의
기술제휴로 열기술 및 고성능의 공업 용로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의 새로운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제 혁신적인 기술력을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내보이겠습니다.

영업품목 · 산업용로 제작
(가열로, 소둔로, 비철금속용해로,
각종 분위기로, 전기로, 요업요로)
· 전기 제어 장치
· CERAMIC FIBER
· 각종 로 재료 판매 및 시공
· ADI 열처리

전력을 다하는 기업
KEM 금강엔지니어링
KUEM KANG ENGINEERING
부산시 금정구 부곡 2동 273-2
TEL.:(051)512-7242~3
(051)517-3488~9
FAX.:(051)514-3593
USA ATMOSPHERE GROUP INC. 기술제휴

어린이 찬불가 경연
20일 부산교대에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오는 20일 부산교육대학 체육관에서 제9회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를 갖는다.

이번 경연에는 독창부문 범어사외 11개팀, 중창부문 보국사외 9개팀, 합창부문 관음사외 8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포교중국어강좌 개강
매주 3회 녹수청산서

장애인 스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포교중국어 강좌가 지난 14일 본사 지하 녹수청산에서 개강됐다.

기초과정, 백유경등을 점차적으로 배우게 되는 이 강좌는 현대중국연구소 미영순교수가 지도한다.(매주월,수,금 오후 7시 30분) 기초반 3개월의 수강료는 3만원.

석굴암 태양 형상화
윤동구씨 설치전

윤동구씨의 설치미술전이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낙산갤러리(724-8148)에서 열린다.

설치 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다져가는 윤동구씨는 이번 전시에서 석굴암에 태양이 비치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무제 1994」를 선보이고 있다.

어머니 합창단 모집
불교방송 30일까지

불교방송은 어머니 합창단 창단 단원 108명을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단원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공개오디션, 3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나이나 학력, 성별 등의 제한 없이 불음 전파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문의: 705-5301〉

「스님, 꽃필 날 …」 출판중단
자유문학사, 허구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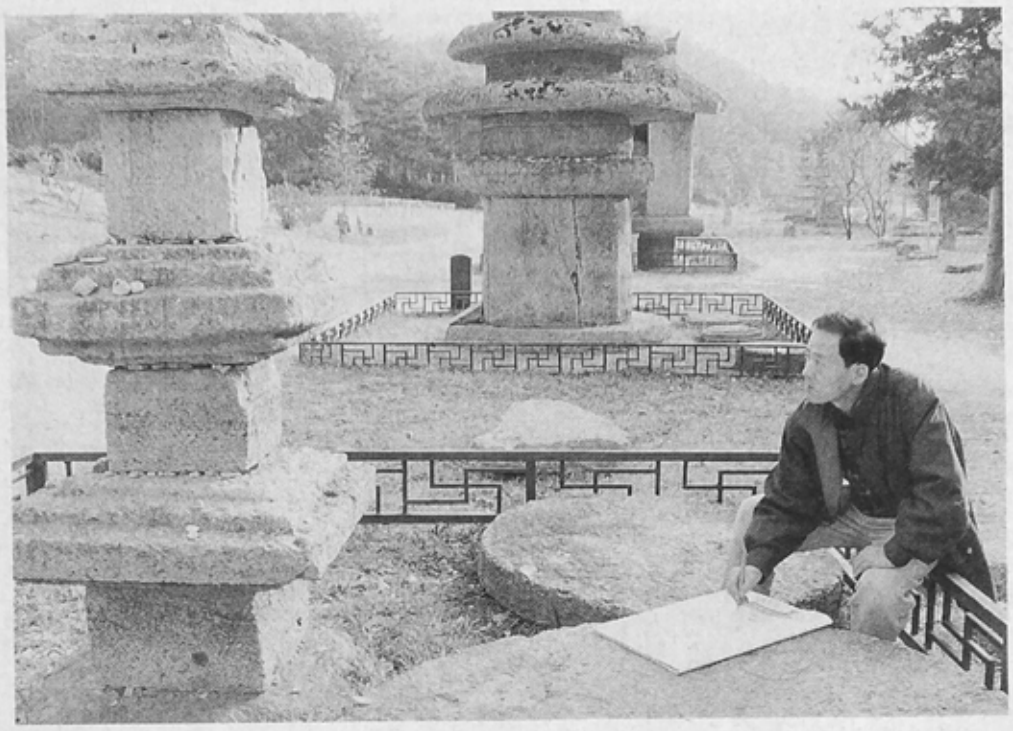
지난해 열반한 성철스님과 관련된 〈스님, 꽃필 날이 멀었습니까〉를 출판해 물의를 빚었던 자유문학사는 최근 교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 "이 책의 내용이 허구임은 물론 저자의 일방적 창작에 의해 기술된 것으로 큰스님의 위상을 훼손시키고 사부대중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인사측은 이에 앞서 〈스님, …〉의 내용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출판사에 판매중지를 요청했었다.

자유문학사는 사과광고를 통해 출판된 도서의 폐기와 재발행 중지를 확약했다.

미완의 천불천탑 붓으로 완성한다

운주사에 깃든 염원 그리는 강연균 화백



▲강연균화백이 운주사 천불천탑을 그리며 부처님세상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

광주/임연태 기자

미완성의 운주사 천불천탑을 그림으로 완성할 것을 발원한 증견 화가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연균 화백. 그는 지난해 30년간의 작품활동을 정리하는 전시회를 서울과 광주에서 가졌다. 또 작품과 화가의 길을 한데 묶은 두툼한 화집도 발간해 화단의 주목을 받았었다.

강연균 화백은 자신의 화업 30년을 정리하고 나니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몰려와 새삼스런 방황을 해야 했다. '이제 또 무엇을 그릴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강화백은 그 방황을 오래할 필요가 없었다.

20여년전에 들렀던 운주사의 계곡이 생각났던 것이다. 투박한 부처님상과 정갈이 솟는 탑들. 그 무질서 속에 깃든 소박한 염원들이 강화백의 텅빈 가슴에 새로운 의욕으로 솟구쳤던 것이다.

"누워 있는 부처님 그림으로 일으킬 터"

"운주사의 부처님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곳곳의 탑들은 우리들의 삶과도 닮아 있다고 봅니다. 그 소외된 듯한

다양한 각도로 접근

외로움 사이로 피어나는 희망의 염원들이 우리들 사는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으니까요"

강화백은 우리들의 얼굴을 운주사의 불상과 탑을 통해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도 일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수채화로 그리고 싶으면 수채화로, 또 유화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유화로, 드로잉을 하고 싶은 것은 드로잉으로 그리기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림의 크기도 손바닥만한 것에서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상중이다.

운주사의 불상과 탑들이 크고 작기가 제각기 다르고 서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싶다는 것이다. 강화백은 아직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주일에 3~4번씩 운주사 계곡을 찾아가 스케치를 한다. 찾아 가는 시간도 매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햇빛의 광선 각도에 따라 탑과 불상의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은 오후 3시경의 탑과 불상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조형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의 각도 입니다. 아침에 보는 탑과 저녁무렵에 보는 탑은 아주 다릅니다. 그 다른 이미지를 그림으로 다양하게 그리고자 합니다"

메마른 풀더미 사이로 쌓아진 탑들을 그리고 또 싱그러운 봄햇살 아래의 불상을 그리는 것. 그것이 강화백이 그림으로 복원하는 천불천탑의 염원인 것이다. 강화백은 단순한 조형물을 그리는 것보다 그 속에 깃든 간절한 염원과 애틋한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운주사의 와불이 일어서는 날 이 땅은 극락세계가 된다는 전설이 있지요. 저는 감히 그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는 날 이 땅은 기쁨의 부처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완의 운주사. 그 아름다운

정토의 아침이 올때까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며 강화백은 우리 시대의 혼란스러움과 경각스런 죄악들을 소멸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제 자신이 착실한 불자의 길을 걷지 않은 것에 대한 참회의 시간과 우리 시대의 어둠을 깨뜨리고 밝은 아침을 열어 달라는 기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림은 일체 그리지 않고 이 작업에만 몰두할 생각입니다"

막연한 도전, 그러나 강화백에 있어 그 도전과 운주사에 대한 열정은 50대 중반의 화가가 갖는 희망이다. 잘 알려진 운주사의 와불이 일어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 이 도전의 마지막이다.

"운주사의 와불이 일어서는 날 이 땅은 극락세계가 된다는 전설이 있지요. 저는 감히 그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는 날 이 땅은 기쁨의 부처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화백의 염원은 그림 그리기에 대한 화가로서의 집착이 아니라 정토세계 구현에 대한 구도자의 수행을 닮아 있었다. 이 작업은 '광주 사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강화백은 지선, 진관 스님과도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 왔으며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러 산사를 찾아가는 것을 그림 이외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불심시심 〈5〉

네 몸 갈아 세상 맛에 섞어

蒸雲踞石老青山 (나운거석로청산)	구름 잡고 돌에 앉아 청산에 늙어
物盡飄零獨耐寒 (물진표령독내한)	온갖 잎 다 져도 혼자 견디는 겨울
知爾碎形和世味 (지이쇄형화세미)	네 몸 갈아서 세상 맛에 섞었으니
使人緣味學清寒 (사인연미학청한)	그 맛 따라 이 맑은 추위 알게 하는 소나무

이 시는 함허(涵虛)대사가 지은 송기밥(松皮飯)이란 시다. 소나무의 속껍질을 말려 갈아 쌀에 섞은 밥이다. 흉년의 끼니를 때우는 먹거리이지만 이시는 오히려 이러한 먹이를 미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먹거리의 소재가 소나무이기에 이 소나무의 청청함이 먹는 이에게도 청정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기구나 승구에 있어서의 늙은 소나무의 기상에서 배우는 겨울철의 고고함은 일반적 시인에게 있어서도 읊을 수 있는 상상이지만, 전 결구에서의 문학적 재치는 역시 선사로서의 사물관이라 할 수도 있겠다.

서리 모르는 고고한 맛을 세속의 곡식 맛에다 섞었다 하였으니 이쯤되면 선사의 자리에서 분연히 속인의 자리로 내려앉은 큰 자비의 몸가짐이기도 하다. 속인들에게 이 맑고 싸늘한 청빈을 맛보게 한다 하였으니, 이 고고한 소나무의 향내음을 선미(禪味)로 대체한 것이다. 여기서는 청한을 배우게 한다(學淸寒)' 하였지만 이는 세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려 배운다 하였으니 역시 스님으로서 되비침이요 겸손이라 하겠다.

이렇듯 이 시는 송기밥이라는 소재로야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인 듯 하지만 스님으로서 대중교화가 몸에 매이지 않고서는 쉽게 이루기 어려운 한 편이다. 형체를 같아부순다 함이 바로 자신을 부숴 대중을 일깨울 수 있다는 큰 자비의 마음이다. 그것을 세상 맛에 섞는다 하였으니, 이 부숴진 몸이 세속의 몸이 아님이 분명하다. 진리의 깨달음으로 세속의 모든 맛을 깨달음의 맛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대중구제를 자신의 몫으로 포용하는 선사의 모습이 역력하다.

이 종 찬〈동대교수〉

선종사연구 논문등 집대성
민영규 교수 「강화학…」「사천강단」 펴내



◇민영규 교수

연세대 민영규 명예교수의 논문과 저술을 묶은 전집 〈강화학(江華學) 최후의 광경〉〈사천강단(四川講壇)〉이 나왔다.(도서출판 우반)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의 직계제자인 민교수는 불교학 이외에도 유학·풍양사학·한국 서지학·서역학(書誌學)·복식(服飾)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예가 깊은 학자로 유명하다.

강화학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제1권〈강화학 최후의 광경〉에는 「일연경(日蓮經)과 돈황(敦煌)의 변문(變文)」「태고보우의 대도(大都) 영녕사(永寧寺) 설법」등이 실려있고, 제2권〈사천강단〉에는 「사천강단」「사천강단습유(拾遺)」「경인조당집인(景印祖堂集引)」「불국사고금역대기」 등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특히, 민교수의 최근 10~20년간 관심사였던 선종사 연구 논문은 제2권에 담겼다. 선종사의 전개 현장이었던 중국 사천(四川)등 현지를 답사해 가며 90년 이후 써왔던 「사천강단」「사천강단습유」등의 논문들은 한국불교사 해석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교수는 논문에서 그간 제도권 속의 한국불교가 '민중속으로'라는 종교 본래의 길로부터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이전부터 형성된 한국 선종사의 법맥이 어떻게 전개, 변천해 갔는가를 철저한 전거와 고증을 통해 분석했다.

녹수청산

공간 가득

그윽한 정취가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禪茶一如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녹수청산은
특유의 비법으로
한방 약차를 달이고
지리산 수제 녹차만
제공합니다.



녹수청산은
신행회 모임이나 소법회 모임을 갖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따로 별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녹수청산에서는
청파 이은구 선생의 고급 분청자기를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차문화를 즐기시려는 분들이나
단체·기업 홍보를 위한
특별 주문을 받습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교통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0, 54, 59, 301, 568 · 2번

해외통신

캄, 평화 행진단 피습
크메르 게릴라 공격
스님등 3명 살상

지난 4월 30일 캄보디아 북서부 지역에서 크메르 루지 게릴라들이 작년 노벨평화상 후보였던 마하 고사난다 스님이 이끄는 평화행진단을 공격하여 비구 1명, 비구니 2명, 일반인 1명을 살상하고 다른 스님 및 분에게는 부상을 입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사난다 스님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불교 잡지인 TRICYCLE 1994년 가을호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잡지에 따르면 게릴라들은 행진 참가자들이 북서부 바탐방의 바벳 지역을 정부군의 호위를 받으며 지나자 자동 소총과 수류탄을 발사했다는 것. 또한 스님과 함께 행진하던 10여명의 외국인들은 게릴라들에게 잠시 억류되었다 풀려나기도 했다고. 캄보디아의 간디라는 별칭을 얻은 마하 고사난다 스님은 캄보디아의 평화를 바라는 염원에서 750명 이상의 비구, 비구니, 일반인들을 조직하여 4월 24일 바탐방에서 250마일의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 행진은 1991년부터 시작하여 세번째 실시되었는데 행로는 크메르 루지군의 근거지인 팔린, 북서부 캄보디아 지역을 거쳐 앙코르 와트 사원에서 끝나게 되어있었다.

〈박미영 기자〉

불자의원 간담회 설립
전일본 불교협회

전 일본불교협회는 지난달 6일 등경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교국회의원간담회를(가칭) 설립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각 종파는 그동안 각각 소속 국회의원 간담회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전일본 규모의 간담회 결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전국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쳐 약 2백여명의 불교신자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동협회의 주최로 변호사인 야마사끼씨를 초빙, '종교와 정치의 현실적 과제'란 제목의 세미나도 개최했다.

불교TV, 불자주식 80억모금

국내외 참여도 높아 · 개국준비 순풍

불교텔리비전(이사장 · 태응)은 불자주주 공모에 총 79억 8천 7백 98만원이 납입된 것으로 집계했다.

불교TV는 지난 10일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을 통해 이같은 주주공모 실적을 발표했다.

전국불자의 전폭적인 참여,1인당 최소 10주 최대 2만주까지 청약 가능했던 주식을 1백 59만 8천여 주식이 매각돼 집계된 것이다.불교테리비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주공모에 불자들이 성심성의껏 동참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불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불교TV는 영상매체를 통해 불법을 홍포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일대 거보의 시작만을 남겨놓고 있다.

신행 현장 생방송으로 배달

btn「자비의 …」등 3개 프로 방영계획

불교텔리비전이 다이나믹하고 현장감 넘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녹화방송이 주류를 이루는 케이블TV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한 불교TV는「btn 소식 일기예보」「 btn 기획 자비의 천수천안」「TV신행상담」을 생방송으로 제작, 불자의 가정에 생동감 넘치는 불법의 인연을 배달할 계획이다.

생방송 프로그램 중 매일 15분간 방송되는「btn소식 일기예보」는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각종행사 및 일기예보를 1일 2회 10시부터 생방으로 꾸며진다. 또,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할「 btn 기획 자비의 천수천안」은 불교TV를 통해 자비보시행 실천의 장을 마련한다. 교구 본말사,지역 사암연합회,각 지방 행정기관에서 추천받은 불우장애인이나 질병가족,소년소녀가장,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와 현장을 중계차로 연결,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생생히 전하고 불자들의 곧곧한 정과 따뜻한 자비심으로 인연을 맺어준다.

「TV신행상담」은 불자들이 사회와 인생전반에서 겪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방청객의 활발한 동참을 유도, 불교적 · 사회적관점에서 상담하고 해결하면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리포터의 등장과 전화, 팩스, 하이텔 · 천리안과 같은 PC통신을 이용한 진행으로 생방송으로서의 신선감을 더 할 예정이다.

이런 불교TV 생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불자들은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다.이에 불교TV는 녹화방송에 비해 방송사고의 위험이 큰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사전에 제작진과 업무부담 책임을 잘 조정하여 세심한 사전기획의 배려를 하고 있다. 또, 불교TV는 전문방송으로서 고유성을 확보한 수준높은 방송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에 전념하는 등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안방에 전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며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사자 몸 속의 벌레

목탁소리

이 경 숙
〈취재1부 차장〉

개혁회의가 노심초사해 온 황한수(진경)외 33명(나중에 17명으로 줄)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각하 판결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선고공판의 취지는 종단 내부의 일은 종단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으로 본안 심사도 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즉 개혁회의가 종단내의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를 제거하며 종헌종법의 정비를 통해 종단의 민주적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구 새대의 폐풍을 쇄신, 수행과 교화 풍토를 진작한다는 명목하에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기에 자주적으로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종교단체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내부 분쟁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종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하는 일이 꽤 있었다. 사법당국도 타종교는 일체 간섭 안하는 경우와 달리 불교 내부의 일에는 칼을 휘두른 적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처럼 불교자체 문제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더이상 간섭 안하겠다는 관결은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관결로 인해 특 하면 사회법에 제소하는 일부 스님들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 건의 재판이 진행되려면 재판준비만 해도 몇 백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변호사 수임료까지 생각하면 개혁회의 7개월간 개혁회의를 대상으로 한 30여건의 재판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산출된다. 소중한 삼보정재가 유실된 것이다.

조계종 담당 이재훈 변호사는 "지금까지 불교가 얕보여온 점이 없지 않았으나 4 · 10승려대회 이후 개혁과정을 보고 불교를 무시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같은 관결을 이끌어 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불교자체에 혼란과 내부 분열이 있으면 그것은 사회 혼란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법의 간섭을 자초하게 된다. 불교가 단합이 잘 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밀붙 수 없고 자율에 맡기게 된다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보여주는 관결이라 하겠다.

사자는 외부의 적에 의해 죽는것이 아니라 자기몸속의 조그만 벌레때문에 죽는다는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의 비유가 다시금 생각난다.

문화재 관리국 내년 예산

5백91억 상정

금년보다 20% 증가 … 국회 심의 남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문화재관리국의 95년도 총예산(공무원 임금 제외)은 591억4천6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 492억6천백만원에 비해 20.07%가 상승한 것이다.

이는 문화재관리국의 평년 예산상승률 15% 보다 5%이상 상승한 액수로, 문화재보존사업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화재관리국 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탑골공원내 원각사지석탑과 원각사 사적비의 훼손 보도로 인한 문화재보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확대돼, 문화재보존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축법당 이전 대법회
30일 대구 공덕원

대구 수성구 공덕원(회주 석용산)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공덕원에서 신축법당 이전 개원 대법회를 갖는다.

공덕원은 20여년동안 전세법당을 이용하다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완공했다.

이날 삼존불 · 지장원불 · 일천불 봉안 및 점안불사가 봉행되고 곧바로 업장소멸, 선망부모영가천도를 위한 지장보살만등불사가 이어진다.

〈문의:(053)741-0066〉

진각종 종무원 교육
내달 1~2일 통리원서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 지공)은 오는 12월 1 · 2일 양일간 통리원에서 각 지역 처무회의를 갖는다. 통리원 정무원들과 각 지역의 예비 교육자들이 모여 종무원 자질향상 및 정신교육, 종무행정 설명회, 회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될 이번 처무회의의 참가 예상자는 40명이다.

창종 6주년 기념법회
30일 법륜종

한국불교 법륜종(총무원장 일화)은 오는 30일 수요일 정오 창종 6주년 기념법회 및 총무원 청사 이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한일종교인 회의
일본 연력사서

제6차 한일종교인회의가 지난15일부터 18일까지 경도 히에산 연력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과 일본, 북한측 종교인 30여명이 참가, 사찰순례로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불이상 후보모집
연구 실천 면학분야

불이회는 제10회 '불이상' 후보를 모집하고 있다.

수상 분야는 연구분야, 실천분야, 출가면학분야이다. 연구분야에는 석사과정 수료 이상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며 불교학 관계 연구에 큰 성과를 올린 사람이나 대학원에서 불교학 관계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다. 또 실천분야는 불교에 입문 5년이상 활동을 한 40세 이하의 불자로 포교와 신행이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출가면학 분야는 수행경력 5년이상 7년이하의 스님이면 추천할 수 있다.

〈문의:575-6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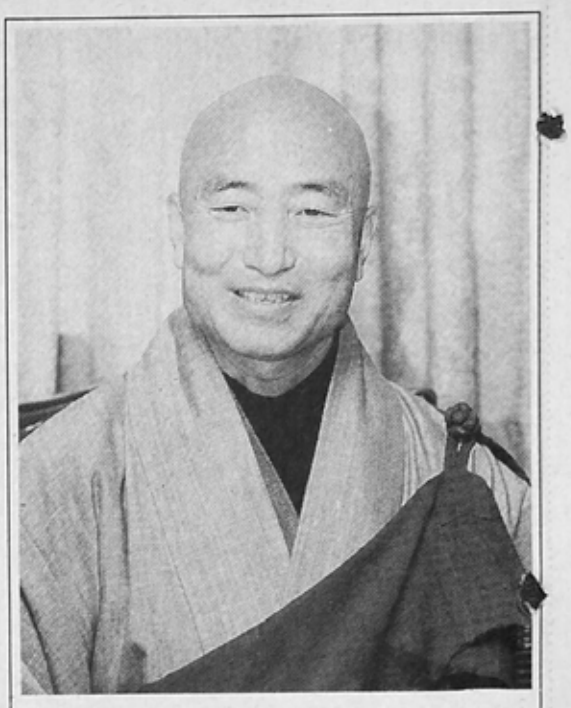
아시아 10개국의 오늘
10부작으로 조명
KBS1TV매주 일요일

KBS와 NHK가 공동제작한「아시아 하이웨이」가 총 10부작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KBS 1TV에서 방송되고 있다.

「아시아 하이웨이」는 현지의 정치,경제,사회,종교적 갈등을 추적한다.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불교적 전통의 흥망성쇠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베트남,캄보디아,태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 캘커타의 방영에 이어 오는 27일 북인도,12월 4일 파키스탄,11일 아프가니스탄,18일 이란편이 방송될 계획이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인생 상담)
따뜻한 가정 (교리 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저희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구룡사 부설 인생 상담
상담전화 (02)759-3033~6



■ 조계종 제11대 종회의장 설정스님

"존경 · 신뢰받는 종회 이끌겠다"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으로 선출된 설정(雪淨)스님(50)은 "기대를 안했는데 의장으로 선출해 주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설정스님과의 1문1답.

– 의장 출마 동기는.

"절밥 먹은지 40년이 넘어 종단을 위해 회향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게 됐다. 개혁불사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어떻게 종회를 꾸려갈 것인가

"이번 종회야말로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종회다. 구 종회가 갖고 있는 비리 · 부조리의 이미지를 척결하고 종단과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개혁종회를 이루는데 앞장서겠다."

– 개혁회의에서 법제 위원장을 맡았는데 개혁회의 평가를 한다면.

"기간이 짧고 할일은 많고 해서 애로점이 많았다. 특히 경험 부족에서 오는 여러가지 미비점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개혁완수를 위해 종회가 적극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종회 운영의 기본 구상은.

"첫째 분중 · 계파를 초월 대화 문화를 창출하겠다. 둘째 과거 종회가 집행부의 시녀 또는 들러리였다는 부끄러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셋째 반대를 위한 반대, 견제를 위한 견제를 지양하겠다. 넷째, 총무원과 함께 입법과 행정의 두 축으로서 종단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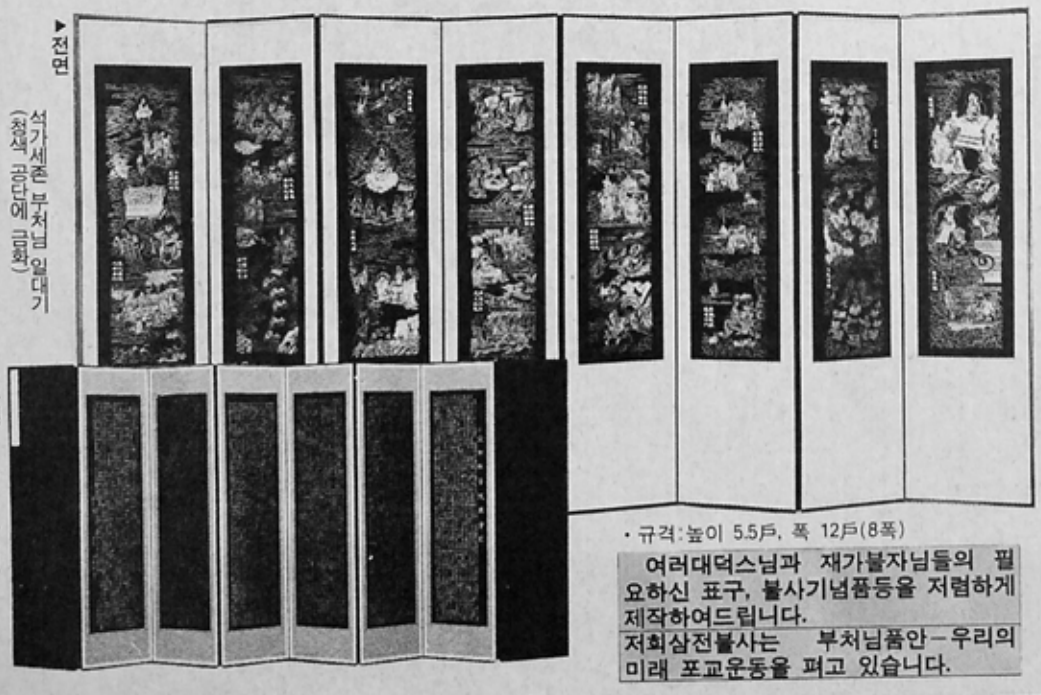
– 총무원장 후보인 월탄스님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다는 말이 있는데

"월주 · 월탄스님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월탄스님과는 여여회(80년대 교구본사주지 친목단체)의 같은 회원이다. 그러나 분중이나 계파를 극복하고 공평무사하게 종도화합에 주력할 것이다."

80%가 초선인 이번 종회에 능력과 열정을 가진 젊은 층이 대거 등원, 종단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는 설정스님은 지난 1955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덕사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 대전 심광사 주지로 있다.

〈이경숙 기자〉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공덕을 쌓는 성품
佛子님들에게 표구비만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 금강경원력 병풍



· 규격:높이 5.5尺, 폭 12尺(8폭)

여러대덕스님과 재가불자님들의 필요하신 표구, 불사기념품등을 저렴하게 제작하여드립니다.
저희삼전불사는 부처님품안-우리의 미래 포교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병풍-팔상록, 금강경
• 작품해설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를 金畫로 전면에 조성하고 후면에 경전의 으뜸인 금강경을 金畫로 사경하여 원력을 담았습니다.
• 전면:팔상록 • 후면:금강경
1. 도솔래의상-석존께서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시다.
2. 비람강생상-룸비니 꽃동산 탄생하시다.
3. 사문유관상-생노병사의 허무를 관찰하시다.
4. 유성출가상-한밤에 城을 넘어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시다.
5. 설산수도상-설산의 6년 고행 최후구경의 정각을 이루시다.
6. 수하항마상-마왕파순의 도전을 받고 굴복을 받으시다.
7. 녹원전법상-5비구의 귀의와 녹야원 설법하시다.
8. 쌍림열반상-열반에 드시다.

포교기념품증정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대중포교를 펴고자 본상품을 신청하시는 분께 백자반야달마 도자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백자 반야 달마도자기)

특별보급가격:₩390,000(현금및 은행신용카드)
장기분할가격 ₩428,000 인수시 44,000, 매월 48,000×8회

황금 관음친견도
대비성자이신 관세음보살친견도를 가정마다 모시는 불자가 됩시다.
힘들고 어려울때 귀을 열어 주십니다.



재가불자 성도거사님이 직접 그린 금화입니다.
· 족자규격: 1520×520 (㎜)
· 포교가격: ₩198,000원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포교원
■ 문의처 : (02)439-6128~9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2-1100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조계종 비구니 목소리 커진다

교구종회 의석 20% 직할교구는 50%차지

포교·복지등 종무행정에 '알뜰손' 기대

비구니 스님들의 교구종회 참여인원이 전체 교구종회의원의 약 20%인 2백40여명으로 밝혀져 교구종무행정에 비구니 스님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선거법상 제한을 두어 직선 비구니교구종회의원은 현재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교구종회 참여는 말사주지직의 당연직 참여분이어서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는 종무행정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보여져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제 1교구 조계사의 경우 교구의원의 50% 가까이를 비구니 스님들이 차지하고 있다.

본사 중심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된 교구종회는 입후보자 등록 현황에 보이듯 교계의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중앙 독점을 방지하고 향후 실시될 지방자치제와 보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지역 불교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그동안 종무행정에서는 소외돼 왔지만 각 사찰·포교당에서 발군의 운영실적을 보여온 비구니스님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회활동을 하느냐와 교구종회가 비구니 스님들의 능력을 어느만큼 활용하게 될 것이냐에 따라 교구종무행정의 내실이 상당히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찰운영이나 유치원 복지관 등 포교뿐 아니라 교육, 복지등 각 불사에 쏟는 비구니 스님들의 열의와 능력은 경판이 나있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타월한 진가를 발휘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총무원이나 본사급 사찰의 주요 종무에서는 소외돼 왔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왔다. 개혁회의가 출범하며 기획조정실과 포교부에 비구니 스님들을 기용해 비구스님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 비구니 스님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교구종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다양한 의견개진과 함께 각 종무행정에 적극 참여할 때 교구종화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구내 중요한 교육 포교 사회 복지등 불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평소 갈고 닦은 경험과 능력이 적극 활용될 때 그것은 지역 불교 발전으로 이어져 전체 한국불교의 발전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비구스님보다 많은 수를 점하고 있지만 참종권에 있어 아직도 제한받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조항이 완전 개선되고, 비구니 스님들 자체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각성 단합한다면 비구니 스님들은 스스로의 권익을 찾을 수 있고 따라서 교구뿐 아니라 중앙 종무행정에의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종단의 한 비구니스님은 "비구니스님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익을 찾고자 노력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비구니들의 권익과 활동을 확대하는 지름길"이라 지적했다.

〈이경숙 기자〉

종파간 화합·인류구원 모색

22일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 방콕서 개최

제19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및 제10차 세계불교청년회(WFBY) 총회가 11월 22일 태국 방콕 임페리얼 퀸스 파크 호텔에서 개막된다.

29일까지 8일간 계속될 이번 총회에는 WFB 1백30개 지부와 WFBY 35개지부 1천2백여명의 대표자가 참가, '불교의 제종파간의 조화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장인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은 용성스님의 오대실천수행덕목인 참선 건강 기도 불사의 중요성에 관해 법어를 할 예정이며 박동기(WFB 본부대표)회장은 오계과지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대표단은 날로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한국불교의 위상제고와 세계불교속에서 한국불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주력할 홍보전을 펼친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총회는 WFB 및 WFBY총회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가해 불교의 제종파간이 조화점을 모색,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대인류구원과 자기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며 WFB 및 WFBY의 세대교체에 의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장례문화 주제 세미나

납골당 장단점등 소개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원(원장 정각)은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장례문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에 따라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묘지공급부족 등 국민생활의 불편요인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홍석교수(동국대 지역환경연구소 소장)가 「예장문화는 환경의 소산이다」를, 동아대 박학길교수가 「공동묘지와 무연묘의 실태와 정리활용방안」, 박옥봉변호사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과 통과의 당위성」, 시의회 보사위원인 이윤식박사가 「매장과 화장의 장단점」, 경상전문대 정길자교수가 「화장의 의미와 납골단지의 의미」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21일에는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주최한 「납골제도 활성화 방안」주제 세미나가 국민연금관리공단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태복 교수가 「한국납골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발표했다.

탱화점안·체육관 개관

광주 정광학원

종립학교 광주 정광학원(이사장 조학주)이 지난 15일 법당후불탱화점안과 체육관 개관을 끝으로 94년도 4대행사를 완료했다.

정광학원은 이날 수산(불갑사조실), 천문(대흥사주지), 지선(백양사주지)스님등 스님 30여명과 동문, 학부형, 교육관계자, 신도등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승원 법당 후불탱화를 불교전통의식으로 봉안했다.

이어 지난 여름부터 진행한 체육관을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한 체육관은 1백50평규모에 철조돔형으로 6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대불교 가판대에서도 만나세요

「현대불교」가 교계최초로 가판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하철을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 가판대에 매주 비치되는 현대불교는 불자들의 신행에 길잡이 역할을 하며 포교사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이런분들께 현대불교를 법공양 했습니다.

▲ 안병철상병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3리〉 10부
▲ 국립경찰병원 경승실 〈송파구 가락본동〉 10부
▲ 삼성의료원 불교법당 〈강남구 일원동 20〉 5부
▲ 구자형 〈전북 장수군 장수읍 733 관리대대〉5부
▲ 서부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부
▲ 관성사 〈충남 공주시 신관동 국립공주병원내〉 1부
▲ 원주시립복지원 〈원주시 반곡동〉 1부

교도소 군부대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1구좌 1만원
◇보낼곳=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소년 가장돕기 부산법회 성황

대행스님 설법, 1만여명 동참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위한 대행스님의 부산대법회가 11월 13일 KBS홀에서 지역불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매년 한차례씩 부산지역 일반법회를 가져온 대행스님은 이날 '참인간으로 사는 길'이란 주제의 설법을 통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근본자리-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관하는 삶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법회는 설법에 이어 불자들의 질의에 즉석 응답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6명의 질문자가 나서 '가정에 불단을 모시는 문제'등 재가불자의 일상 수행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날 법회는 부산불교연합회 등 9개 기관이 후원했고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주최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거둬진 성금은 전액 부산시에 전달돼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쓰여진다.

21일간 정진법회

포이동 구룡사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발원하며 지난 3년간에 걸쳐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 구룡사가 올해는 '21일 수행발심기도정진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법회에는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유마경 등 10가지 경전을 채택, 종범·자광·진오·성본·원산·무진장·정락·혜남·지안·혜인·정우스님등 모두 11명의 선·강사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있다. 법문후에는 108배 대예참도 봉행한다.

승가대 세금부과 물의

성북세무서 교육출연금을 기부금으로 해석

"형평 잃은 법 적용 납득안돼"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 이하 '승가대')에 부당한 세금이 부과돼 문제가 되고 있다.

같은 운영체계를 가진 포항공대와 가톨릭 신학대학등은 중앙승가대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인가된지 4년밖에 안된 승가대에만 유독 엄청난 세금이 부과돼 법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성북세무서는 승가대에 △출연부동산 2년 이내 미사용건으로 1천38만50원 △기부금 고유목적에 미사용 3천6백67만1백원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미제출로 9백29만6천449원 등 세금 총 5천6백만4천599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승가대는 △출연부동산 2년이내 미사용에 대해서는 출연받은 경주 용강동 소재 약 4만5천평의 토지는 수익사업으로 관상수를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90년4월부터 올봄까지 계속 매매했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단에서 지원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한 세금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단의 지원금을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학적과 교무과 총무과 등의 인건비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해당규정의 내용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했다는 것이 승가대측의 주장이다.

승가대는 조계종이 출연한 교육비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법에 의한 출연 재산 명세서등의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됐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가대는 이번 과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를 성북세무서에 청구했으나 지난 9월 7일 기각당했다.

승가대는 이에 대해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승가대 사무처장 수완스님은 "조계종단 예산에 승가대 예산이 포함돼 있고 수계받은 종단 구성원인 학인들을 교육시키는 승가대에 지원금을 사학에 내는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지않고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가톨릭신학대학등은 그런 세법이 있는 지조차 모를 정도라고 밝혔다. 즉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법 개정 후 중앙승가대에만 최초로 세금이 부과된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불교계에 대한 의도적 불이익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생명가치 …」세미나

내달 2일 세종회관

한국불교환경교육원과 천주교의 '하늘 땅 물 벗'등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생명가치를 생각하는 민초들의 모임'에서는 다음달 2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생명가치를 통한 지역의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3대사업 성취 3천배

민자 불교회 기원법회

민자당 불교신도회(회장 곽정출의원·민자불교회)는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문경 봉암사에서 불교계 3대사업 성취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기원법회에 앞서 민자불교회소속 회원 21명은 회의를 갖고 △불교종합병원 건립 △고려불화 복원 △이차돈 기념사업등 3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어 3대사업 실천을 다짐하는 3천배기도를 1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문화재 전문대책위 구성 검토

조계종, 관람료일부 지원등 고려

종단차원의 문화재 전문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관람료징수 사찰의 주지 40명은 지난 11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성보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관리국과의 긴밀한 접촉과 상호 협조를 위해 상설기구로 문화재 전문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전승부분에 역점을 두어 관람료 예치금의 일부를 종단에 공동예치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관람권은 총무원에서 일률적으로 인쇄, 관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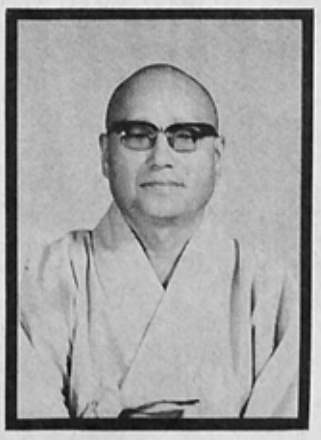
「공명선거」성명 잇따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등

총무원장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출처를 알수 없는 괴문서가 유포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등 혼탁선거가 우려되는 가운데 선거법을 엄정히 지켜 공명선거를 이룩하자는 성명서가 각 단체에서 발표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탄성), 범종추 공명선거 감시단(단장 진욱),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는 지난 15.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는 개혁불사를 계승해 나가는 책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불사인 만큼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유인물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 엄중 문책 하겠으며, 총무원장 후보들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탄허대종사님께서 30여년전 불교의 대승적 화엄사상만이 21세기를 지향할 우주시대의 종교로써 국민적 중심사상이라고 사자후 하셨던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본 재단에서는 창립 10주년과 탄허 대종사님의 화엄경 간행 20주년을 기념하여 자광사 3층 대법당에서 신중탱화 점안식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부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1월 20일(음 10.18) 10시
■장 소 : 계룡산 자광사
■증 명 : 비룡, 석주 대종사
■설 법 : 변각성스님
(주제 : 화엄경간행출판의 의의)
정병조박사
(주제 : 현대불교의 진로)
불기 2538년 11월10일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계룡산 자 광 사
대전직할시 유성구 학하동 649
☎(042)822-9219~20
☎(042)822-6472~73
FAX (042)822-8304

헤리후 건강칼럼 <6>

마 음

거짓 앓는병

병이 나면 사람들은 병원을 찾게 된다. 요즈음 병원의 문턱이 높아 가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많고, 또 병원을 찾아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진찰은 2~3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평을 많이 한다.

나도 의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곧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실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엄토당토 않은 이유로 병원을 비난하는 두가지 유형의 환자가 있다. 하나는 병이 없으면서 병원을 찾아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을 때까지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가 있다. 이들은 군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질병을 조작하여 치료받기를 즐겨했던 한 독일병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병이다. 여러번 입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도 여러번 하면서 즐긴다.



다른 형의 환자는 꾀병환자다. 꾀병은 병이 없으면서도 어떤 목적으로 병을 칭탁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환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군대 입영을 면하기 위해 아프지도 않은 부분을 아프다고 과장하거나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그런 거짓 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이 꾀병은 병이 없는데도 있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뮌하우젠 증후군과 같으나 꾀병은 그 병으로 인해 뚜렷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뮌하우젠 증후군은 그런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것이 다른 점이다. 무의식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동정을 받거나 아니면 적개심의 대상에게 복수를 하는 마음의 병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동정을 받거나 복수 노린 마음의 병

대개 병원에서 면밀한 진단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희한한 환자들이다. 이런 환자는 자신에게 병이 없다고 진단해준 의사를 비난하거나 그 병원이 불친절하다고 비난하면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간다. 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 혹시 했던 걱정이 풀렸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병이란 고통스러운 것이고 기능을 잃을지도 모르며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불행한 원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병이 아니라는 확진을 받고도 서운해하는 환자가 있으니 그런 환자를 뮌하하우젠 증후군이란 깊은 산사의 여승이 되어볼까. 그러나 그 자리가 나처럼 속세의 고통 피하기 위한 피신처도 아니오, 더구나 남만적인 대상이 아님을 난 알 수 있었다. 중생을 구하고 해탈을 위한 수행의 깊임을. 무엇에든 미쳐보자. 운전 연습, 방송통신대 5년제 입학, 불교 경전공부, 경전 외우기…, 몸과 마음을 꼼짝 못하게 얽어놓았다. 추석이 지난 뒤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려고 시골길을 달리다 문전 미숙으로 깊고 넓은 개천으로 곤두박질하였다.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매일 죽는 여자 주부신행담

⑤ 〈마지막 회〉

"모두가 네가 있어서 일어난 일, 너를 죽여라"

신경이 날카로왔던 것으로 기억되는 어느 여름날, 수도꼭지를 틀려고 일어나다 퍼걱한 허리는 목도 발가락도 꼼짝 못하게 하여 그림처럼 엎어져서 지냈다. 내 몸은 산아버린 나무상자처럼 되어갔다.

허리, 좌골 신경통, 뒷머리 땡김, 어깨결림, 현기증, 설사, 변비, 가슴 두근거림 손발의 경련과 쥐나는 증상, 손톱에 생기는 깊은 골곡, 얼굴에 앉는 검은 기미, 책을 볼 수 없이 쓰린 눈…, 이루 열거할 수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고친다는 이는 없었다.

정말 죽어야 겠는데,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널 사랑한다. 우린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지 않느냐?' 넌 나를 떠나면 안된다.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그의 나에 대한 집념은 숙명적인 것 같았다. 연애시절 지어놓은 이름을 지금까지 부르는 그는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히스크리프'를 연상시킨다. 그래, 언젠가는 그의 그물에서 죽던지 내가 그를 죽일지도 몰라. 내 환상은 현실과 분별을 할 수가 없었다. 차도 없었고 작은 것을 미련해도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시부모님. 그 숨찬 죽음의 고비에서 지금을 있게 해 준 내 주인공. 뭍아가신 친정부모님.

나의 아상을 죽이기 위해 한 평생 대씨온 남편, 시댁식구들, 학교의 아이들, 풀과 나무와 바람에게까지도 감사하고 미안했다.

한푼 글자 한 획까지도 나의 마음공부를 도와주었다. 법(法), 승(僧), 도(道), 안(安)…, 지면 관계로 모두 쓸 수 없는게 안타깝다. 모든 고의 원인은 '나'다. 부정적이고, 융통성 없고, 욕심 많고, 고고한 척 도도하고, 부러질 망정 휠 줄 모르는 내 고집과 독선, 내 속의 알맙은 찾지도 못하고 수없이 남을 원망해온 가시많은 밤송이.

스님의 말씀은 피뢰침을 타고 내 전신으로 흘러내린 벼락이었다. 금방 훨훨나는 새처럼 자유로와진 것 같았다. 정말 난 주인공에 미쳤다. 신나고 즐겁고…, 그 환희는 나비등을 타고 무지개를 넘는 것 같았다. 내 발심은 뜻맞는 동료들에게 전해져서 한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옛날 도봉산 다니던 때를 상기한 남편은 사머니즘적인 종교는 맹신이라고 날카롭게 떨러왔다.

"당신이 회장이야? 장님이 장님을 끌고 다녀?"

남편의 비수에 난 번번이 걸려들어 옴짝을 못하고 이파했다. 한 희심으로 천방지축하는 내 모습이 보이기 사작했다. 내 머리카락 한올도 죽이지도 녹이지도 못하고 구관조처럼 스님의 말씀을 옮길 뿐이었구나. 경전, 법문, 선이라는 쌀과 물과 불을 가지고 한 술의 밥도 죽도 떡도 만들지 못하면서 밥이 있어도 밥인줄도 모르고 허기에 지친 나그네. 그러면서 물과 바람같은 대자유인이 뭔 것 같은 착각, 소리없는 울음에 목이 메여 입술을 깨문다. 남편의 비수는 내 깊숙한 환부를 도려내주는 자비요, 축수높은 전등으로 달려가는 불나방의 날개짓을 한한 선입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별 덤어리였던 내 몸은 어느새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 매사에 감사할뿐. 난 정말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다.

하늘빛과 바람의 소리와 내 모습, 일체를 바로 볼 수 있는 눈, 어떠한 칼에도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기 위하여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 매일매일…

이 연 옥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옥야경 (끝)

If fearless of the lash and stick, unmoved,
All things enduring, calm and pure in heart,
She bear obedience to her husband's word,
From anger free-
Let her be called: a handmaid and a wife!

채찍과 회초리를 겁내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지도 않아
모든 것을 참아내고 심성이 고요하고 깨끗하여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화를 내지도 않는 이,
그를 일러 종같은 아내라 한다.

Now she who's called: a mistress, slayer, thief,
Who's harsh, immoral, lacking in respect,
When cometh death-
Will wander in the miseries of hell.

여주인, 살인자, 도둑이라 불리는 이들은
부자비하고, 음란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죽음이 오면
지옥의 비참 속을 방황하리라.

But mother, sister or companion, slave,
In precept long established and restrained
When cometh death-
Will wander in the happy heaven world.

그러나 어머니, 누이, 친구, 종같은 이는
오랫동안 계율에 따라 살며 절제하였기에
죽음이 오면
천상의 행복에 노닐 것이다.

These, Sujātā, are the seven kinds of wives a man may have; and which of them are you?
Lord, let the Exalted One think of me as a handmaid and a wife from this day forth.

이들이, 선여인아, 남자가 얻을 수 있는 일곱 종류의 아내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떤 아내인가?
부처님, 오늘부터 세존께서는 저를 종과 같은 아내라 생각하소서.

